

이슈페이퍼

2021-01

‘코로나공황’의 시작, 전개과정, 그리고 전망

박하순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2.4.



보고서는 민주노동 홈페이지(<http://www.nodong.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동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0 전송: 02-2635-1134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동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 | |
|---------------|----|
| 요약 | iv |
| 1. 서 | 1 |
| 2. 다차원의 경제위기 | 2 |
| 3.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 7 |
| 4. 결론-전망 및 함의 | 50 |

표 목 차

| | |
|--|----|
| [표 1] 미국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21 |
| [표 2] 한국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21 |
| [표 3] 한국의 서비스업 주요업종 생산지수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가율 | 23 |
| [표 4] 한국의 품목별 수출(단위: 백만달러, %) | 25 |
| [표 5] 주요국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대 국내총생산) | 27 |
| [표 6]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산업 업종별 취업자 규모 변동(단위: 천명) | 37 |
| [표 7]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전체 취업자 변동(단위: 천명) | 41 |
| [표 8]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연별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42 |
| [표 9]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43 |
| [표 10]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45 |
| [표 11]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45 |
| [표 12] 한국의 실업자 증감(단위: 천명) | 47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미국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 | 3 |
| [그림 2] 한국의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 | 4 |
| [그림 3] 미국 비금융 법인자본 시장가격 이윤율(1930-2019) | 5 |
| [그림 4] 한국의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1975-2019) | 6 |
| [그림 5] 로그눈금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 10 |
| [그림 6] 로그눈금 미국과 유럽 주요국 1그룹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 12 |
| [그림 7] 로그눈금 미국과 유럽 주요국 2그룹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 14 |
| [그림 8] 로그눈금 미국과 중남미 주요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 15 |
| [그림 9] 로그눈금 미국과 남아공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 16 |
| [그림 10] 한국 전년 동월 대비 일평균 수출 증가율 | 24 |
| [그림 11] 미국 S&P 500지수 | 28 |
| [그림 12] 미국 기술주(나스닥 시장) 지수 | 29 |
| [그림 13] 미국 법인기업에서의 순부가가치와 그 구성 | 30 |
| [그림 14] 로그눈금 한국 코스피 지수 | 31 |
| [그림 15] 미국 쯤비기업 채무액 | 32 |
| [그림 16] 미국의 취업자 규모 추이 | 34 |
| [그림 17]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위기에서의 고용감소율 | 35 |
| [그림 18]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계절조정) 취업자 규모 변동 | 41 |
| [그림 19]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주요 업종의 2월 대비 매월 취업자 비율 변화 추이 | 44 |
| [그림 20]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주요 '중사상 지위' 취업자에서의 2월 대비 매월 비율 변화 추이 | 46 |
| [그림 21] 주요국 실업률 | 48 |

요약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촉발이 되었지만 장기에 걸친 이윤율의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 그리고 순환적 공황과 맞물리면서 위기는 증폭되었다.

각국 경제상황은 2사분기의 큰 폭의 역성장 뒤 3사분기에 상당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방역을 일정하게 포기하면서 얻은 결과이고 이런 결과마저 불안하기 그지없다. 몇몇 나라에서 추가적인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4사분기 성장률이 대폭 낮아지거나 역성장으로 돌아선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효험이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처방이 있기까지는 이런 상대적인 호전이나 악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사분기의 성장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4사분기에 수출증대로 플러스 성장을 했으나 이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의 편차도 극심하다.

물론 이 정도의 상황도 대대적인 정부지출 증대와 제로이자율로의 복귀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대와 금융투기 및 불안정을 댕가로 한 것이다. 좀비기업은 늘어가고 있고, 효험이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처방이 있기까지는 고용 및 실업상황의 추가적인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각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자본주의는 잘해야 3%대 성장, 못하면 1-2% 성장 및 역성장을 오가는 장기불황 상태에 있다. 즉 이윤율 저하 및 낮은 이윤율 수준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고(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가 그 특징이다), 2008년 위기 이후 저조한 성장이긴 하지만 장기에 걸친 회복 끝에 과잉생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설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문제들이 거의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에 따른 위기적 양상을 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장기불황은 지속될 것이고, 원유생산, 다수 제조업, 새롭게 거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보기술 기반 산업 등에서의 구조조정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서 전례 없이 심화된 부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완화책으로서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들이 소멸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될 문제도 상당할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거의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위기는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고 사회적 모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15]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 고용·실업 분석 및 전망)에서 필자는 장기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시적) 해고금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 인상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업간 인력재배치, 사회적 연대를 위한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더해 쯤비기업의 사회화와 노동조합이나 직원평의회 등의 개입이나 통제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 악화한다면 방역을 위해서 노동자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작업장 재설계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빈발 및 확산이 생태위기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정책들 중에 그런 정책은 거의 없고 당장의 경제위기를 완화하거나 벗어나자는 대중요법의 정책들만 제출이 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과 경제위기의 노동자 민중적 관점에서의 극복이나 생태위기의 극복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 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가 촉발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2020년 2사분기에 큰 폭의 역성장을 한 뒤(사실 2020년 1사분기 혹은 2019년 4사분기부터 역성장에 돌입한 나라가 꽤 되지만 큰 폭의 역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2사분기에 발생했다) 3사분기에는 다시 상당한 플러스 성장을 하였다. 이 한 개 분기씩의 큰 폭의 역성장과 상당한 정도의 플러스 성장은 각각 코로나 19 대유행 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세계적으로 진행된 봉쇄조치(lockdown)와, 봉쇄조치의 해제 및 코로나 19 대유행에 대한 나름의 적응의 결과라 해야겠다. 물론 코로나 19 대유행 및 봉쇄조치 이전에 몇 년간 달아오른 증권시장과 원유 등 일부산업에서의 과잉생산이 있었고 이것이 코로나 19 대유행 및 봉쇄조치의 파괴적 효과를 극적으로 키운 조건이 되었다. 즉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이들 시장을 사로잡은 공포(panic)는 증권시장의 지속적인 상승과 원유 등 일부산업의 과잉생산이라는 초기 조건과 코로나 19 대유행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면 3사분기의 성장률의 반등은 단순히 봉쇄조치의 해제로만 설명되어야 하는가? 봉쇄조치가 해제되었어도 그 정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은 여전했는데 어떻게 그런 반등이 가능했을까?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2사분기의 생산 감소가 봉쇄조치 등으로 지나치게 컸다, 즉 비교대상이 되는 2사분기의 성장감소가 지나치게 큰 데서 오는 기저효과가 존재한다 둘째,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었다 셋째, 2사분기에 미뤄두었던 지출(소비와 투자)을 3사분기에 뒤늦게 진행하였다 넷째, 제로금리로의 복귀나 정부지출 증대가 본격화하면서 성장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코로나 19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소매업이나 레저 및 접객업에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즉 테이크 아웃 및 배달 활용, 온라인을 통한 영업 등이 다소 활성화하였다 여섯째,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IT 산업)의 성장이 있었다. 여기서 다섯째와 여섯째는 자본이 코로나 19 대유행의 조건에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각국 경제는 경기(驚氣)에서 깨어나 과거 성장궤도로 복귀한 것인가? 즉 3사분기의 상당한 성장과 이어지는 회복은 코로나 불황을 말끔히 털어버렸는가? 물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다.

이 보고서¹⁾는 1년이 다 되어 가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현재를 살펴보고 간단하게나마 전망을 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전개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고 전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을 간단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2. 다차원의 경제위기

이번 경제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자본주의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구조적 위기

[그림 1]²⁾에서 보듯이 미국자본주의는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³⁾이 5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몇 차례 10년 내외의 주기로 찾아오는 순환적 위기(공황)를 겪으면서 이윤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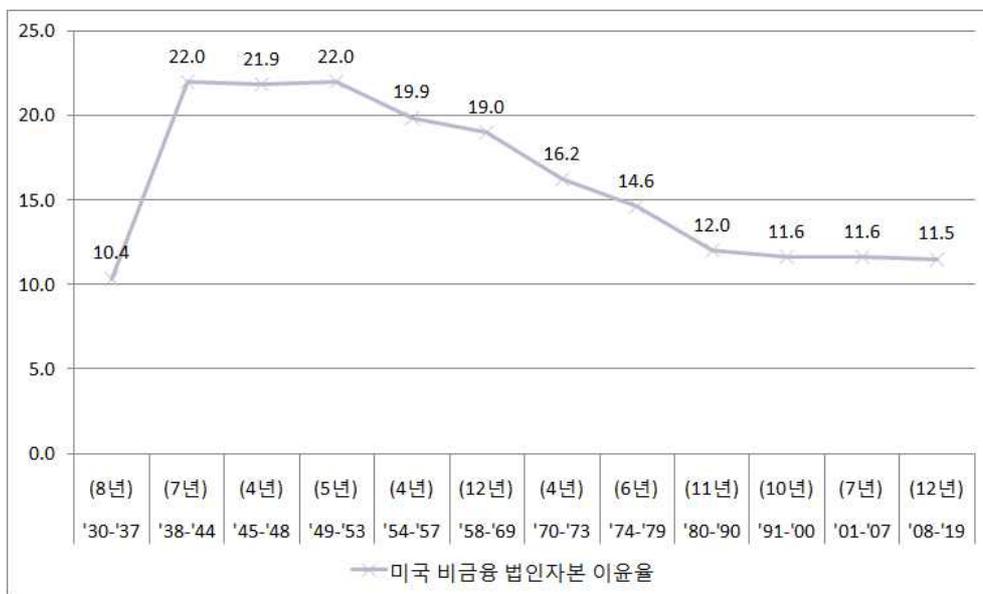
1) 이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15]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 고용·실업 분석 및 전망」 (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3&document_srl=7788859) 확대판이자 후속 업데이트판임을 밝힌다.

2) 필자의 몇몇 글에 유사한 그래프가 있었으나 이는 2019년 최신의 통계까지 포함된 그래프임을 밝힌다.

3)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전제한, 생산가격에 기초해 산출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이윤율('생산가격 이윤율')에 근사한 이윤율이다. 고정자산은 역사적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고, 감가상각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진행했고, 인플레이 조정을 거친 이윤율이다. 자세한 사항은 박하순(2018), "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전망" (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13&document_srl=7284301)을 참조하라.

1970년대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미국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졌다고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80년대부터 시작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추가적인 이윤율 하락은 막아냈으나 이윤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촉발한 경제위기에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가 그 근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윤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 위기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계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를 운위할 상황도 아니라 해야겠다.

[그림 1] 미국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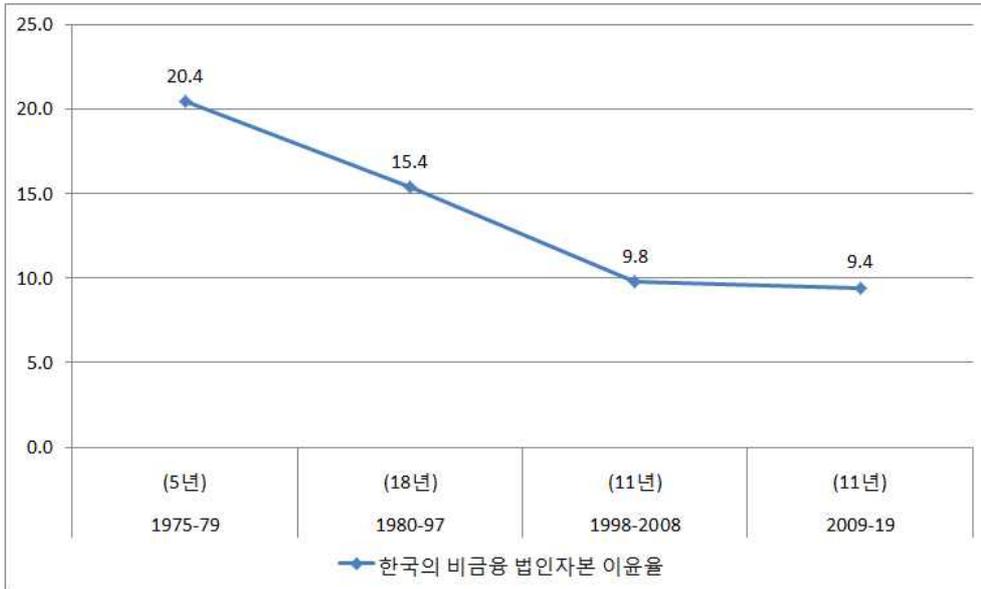


자료: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국도 미국자본주의의 이윤율곡선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70-80년대와 90년대에 이윤율이 하락해서 그 이후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역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⁴⁾

4) 한국의 이윤율곡선은 미국의 이윤율 곡선과는 달리 고정자산을 경상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박하순(2018) 각주 60)을 참조하라.

[그림 2] 한국의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



2) 순환적 위기

[그림 3]⁵⁾에서 보다시피 과잉생산의 결과 미국 비금융 법인자본 시장가격 이윤율이 하락하여⁶⁾ 2019년에 다른 경기순환에서의 경제위기 시기의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즉 코로나 19 대유행이 아니어도 (구조적 위기 속에서의) 순환적 경제위기가 도래할 상황이었다. 이윤에 비해 과도하게 팽창한 주식시장, 세계적인 차원에서 셰일오일을 포함한 원유의 과잉생산, 제조업 및 정보산업 등에서의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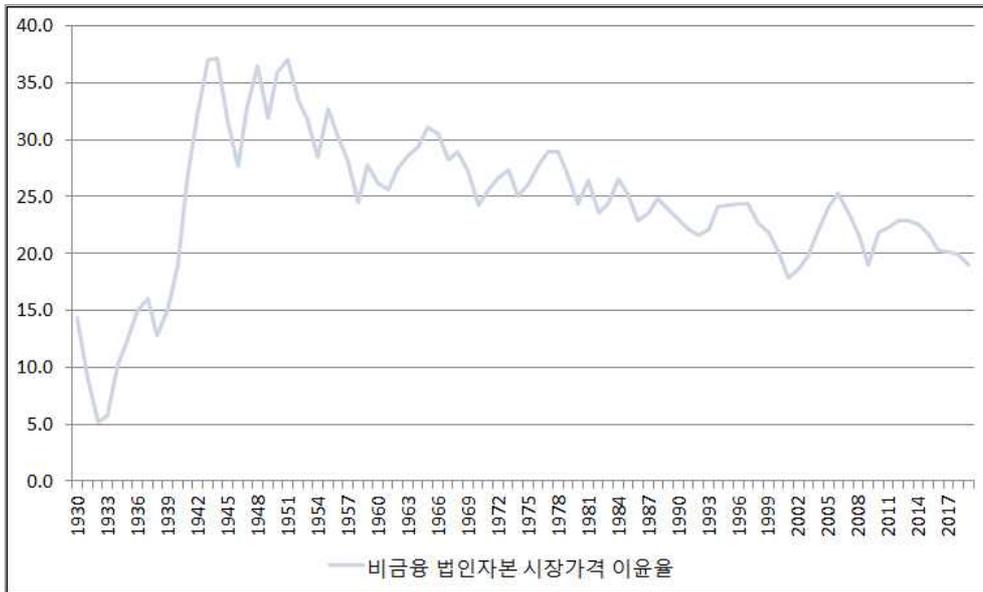
5) [그림 1]과 마찬가지로 필자의 몇몇 글에 유사한 그래프가 있었으나 이는 2019년 최신의 통계까지 포함된 그래프임을 밝힌다.

6) 시장가격 이윤율은 하나의 경기순환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는데 시장가격이윤율의 하락은 과잉생산의 효과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과잉생산=시장가격이윤율의 하락이 순환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가격이윤율은 마르크스적 생산가격 이윤율과는 다르다. 마르크스적 생산가격 이윤율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착취율, 회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런 비율들은 하나의 경기순환 안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시장 가격이윤율의 변동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고정자산은 역사적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고, 감가상각은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하순(2018), “미국 등 주요국 및 한국 경제의 장기불황과 새로운 위기전망” (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13&document_srl=7284301)의 ‘보론: 미국경제의 마르크스적 이윤율’을 참조하라.

성 악화 등 경제위기의 전조가 뚜렷했다.⁷⁾

[그림 3] 미국 비금융 법인자본 시장가격 이윤율(1930-2019)



자료: 미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대외종속성이 강한 한국자본주의의 경우 순환적 공황은 미국처럼 뚜렷하지 않다. 다만 세계경제의 중심 미국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한국경제의 시장가격 이윤율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의 2009년 수준보다 낮고 아이엠에프 위기 당시의 1998년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7) 박하순(2020),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5&document_srl=7624664)을 참조하라.

[그림 4] 한국의 비금융 법인자본 이윤율(1975-2019)



자료: 한국은행

3) 코로나 19 대유행이 촉발한 경제위기

코로나 19 대유행을 계기로 주식시장 폭락, 유가폭락 등 경제위기(‘코로나 공황’이라 하자)의 조짐이 뚜렷하였다.⁸⁾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봉쇄조치(lockdown)가 취해지면서 2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이 급전직하하였다.

코로나 19 대유행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봉쇄조치(lockdown) 이전에 몇 년간 증권시장이 달아올랐고 원유 등 일부 산업에서 세계적인 과잉생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19 대유행 및 봉쇄조치의 파괴적 효과를 극적으로 키운 조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이들 시장을 사로잡은 공포(panic)는 이런 초기 조건과 코로나 19 대유행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미국경제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순환적 위기 직전의 상황

8) 기업수익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해서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어있었고, 세계적으로 원유도 과잉생산 상황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에 있었고, 코로나 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다.

결국 이번 위기는 미국자본주의를 핵으로 하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미국자본주의의 순환적 공황,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및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봉쇄조치)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위기라 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이런 복합적인 성격은 초기 위기의 파괴적인 양상 및 조기 회복, 그리고 이후 전망되는 지지부진한 회복 등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경제위기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3.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1) 성장률

다양한 국가의 경제위기의 심도나 회복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별 그룹으로 나눠 주요국 성장률을 살펴보면서 경제위기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⁹⁾

(1) 미국

미국경제가 2020년 1사분기에 -1.3%,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이 본격화한 2사분기에 -9%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0년 3사분기에 성장률이 7.5%로 급등했다. 그리고 2020년 4사분기에는 1% 성장률을 나타냈다. 2020년 4사분기 생산규모는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의 97.5%에 머문다. 2020년 전체 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 2019년 생산규모가 100이라면 2020년 생산규모는 96.5라는 얘기다. 3사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흡사 1개분기만에 브이(V)자 회복을 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달아오른 증권시장까지 생각해 보면 V자 회복은 완전한 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4사분기 성장률은 3사분기의 성장속도와는 거리가 먼, 예년의 성장속도로 급격히 회귀하였다.

9) 이하 각국의 성장률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ttps://stats.oecd.org/>)에서 가져왔다.

결국 지난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기에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2009년의 성장률이 -2.5%였으니, 과연 이번 위기는 그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지금까지만 보면 1930년대의 대불황(1930-1933년 사이에 -8.5%, -6.4%, -12.9%, -1.2%라는 연속 4개년에 걸친 역성장이 있었고, 몇 년 회복을 하다가 1938년에도 -3.3%의 역성장을 하였다)에 견줄 정도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대불황 이후 최악의 성장률도 아니고 두 번째로 나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대전 종전 후인 1946년에 정부지출로서 군비의 급격한 감소로 성장률이 -11.6%를 기록했었다.¹⁰⁾¹¹⁾

(2) 아시아 주요국들

경제규모가 큰 아시아 주요국들, 즉 중국, 한국, 일본, 인도의 사정은 천차만별이다. 미국과 대조를 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코로나 19 대유행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봉쇄조치가 일찍 시작되었던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주요국들은 2사분기에 성장률이 폭락했다가 3사분기에 성장률을 회복했다. 중국은 1사분기에 성장률이 폭락했다가 2사분기에 회복했다.

회복정도는 [그림 5]에서 보다시피 중국이 가장 활발해서 이전 궤도를 회복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전 성장 궤도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림 5]는 로그 그래프여서 위기 이전 그래프 상 어느 곳에서도 수직선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증가율 혹은 감소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생산의 감소율 또는 증가율을 어느 정도 알

10) 성장률 통계는 미국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를 참조하라.

11) 한편 위기 초기에 이번 위기를 1930년대의 대불황에 견주거나 혹은 이에 근접하는 정도의 위기로 이야기하는 논자들이 많았으나 위에서 보았다시피 1930년대 대불황에 견줄 정도의 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1930년대 위기에는 국가의 체계적인 개입이 없었거나 뒤늦게 있었고(2차대전 전비지출은 어마어마한 정부지출로서 '군사적 케인즈주의'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고 대불황에서의 탈출은 이로 인해 가능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각국의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하나 국가의 개입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위기의 심도나 전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변수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고려 없이 너무 쉽게 시시때때로 1930년대 대불황을 소환할 일은 아니다. 국가의 개입의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독점자본주의의 유지나 재생산, 그리고 그것의 강화에 있을 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강화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유보를 달아야겠지만,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정부개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처럼 치부한다면 이는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국가의 개입의 수단, 규모, 방향 등을 주요 투쟁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 있다.¹²⁾ 위기 이전 생산규모에서 2020년 3사분기까지 감소율이 가장 큰 나라는 인도이고 그 다음이 일본으로 감소율이 미국보다 더 크다. 그 다음이 한국이고 중국은 3사분기 현재 이미 위기 이전 생산규모를 회복한 상태다.

위기 돌입 시점이 일본은 2019년 4사분기이고, 중국과 한국은 미국과 동일하게 2020년 1사분기이고, 인도는 다른 나라보다는 한 개분기가 늦은 2020년 2사분기다.

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면, 인도는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8.8% 감소한 상태고, 일본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5.7% 감소한 상태고, 한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2.4% 감소한 상태고, 중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년 4사분기의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는 3.8%가 증가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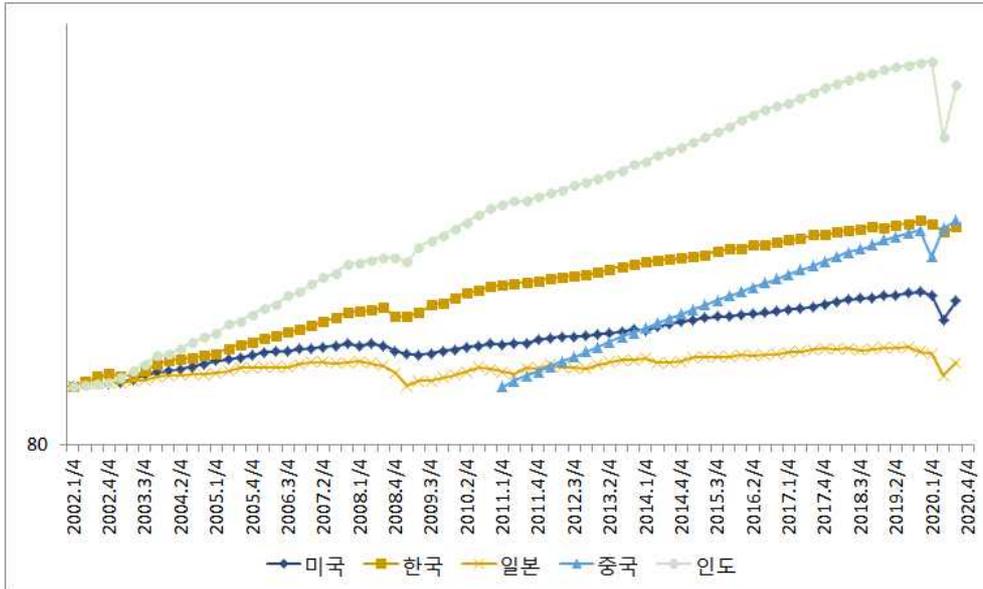
미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 분기인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3.4% 감소한 상태여서 인도와 중국은 미국보다 생산 감소 정도가 더 심하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양호하며,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양호한 상태로서 말 그대로 브이(V) 자 회복을 한 상태다.

4사분기 성장률이 몇 나라에서 발표되었는데 중국은 4사분기에도 2.6% 성장을 했고 한국은 1.1%, 미국은 1.0% 성장을 했다. 결국 연간으로 쳐서 아시아 주요국들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인 중국과 한국은 미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인도와 일본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¹³⁾

12) 예를 들어 인도의 위기 직전 생산규모에서 2020년 3사분기까지의 생산감소율은 위기 이전 생산규모를 표시하는 점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를 나타내는 점과 수직인 자리로 위치시키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면 그것이 인도의 생산감소율이 된다. 각국의 생산감소율이나 증가율(중국)을 그렇게 구할 수 있는데 육안으로 봐도 인도의 생산감소율이 미국의 생산감소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2개 분기 이상 역성장'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고, 인도가 4사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한다면 인도도 현재까지는 엄밀한 의미의 경제위기를 겪은 것은 아니다. 물론 코로나 19 대유행은 끝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림 5] 로그눈금 미국과 아시아 주요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2002.1/4-2020.3/4)(2002.1/4=100: 중국의 경우 2011.1/4=100)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https://stats.oecd.org/>)

(3) 코로나 19 대유행이 심각했던 유럽국가들

유럽 나라들 중 코로나 19 대유행이 초기에 심각했던 나라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를 미국과 대조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 나라군도 아시아 주요국들처럼 2020년 2사분기에 성장률이 폭락했고 3사분기에 성장률을 회복했다. 그런데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는 1사분기에도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일본처럼 2019년 4사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회복정도는 [그림 6]에서 보드시피 이들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처럼 이전 성장 궤도를 회복한 나라는 없다. [그림 6] 역시 로그 그래프(이하 동일)여서 위기 이전 그래프 상 어느 곳에서도 수직선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증가율 혹은 감소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생산의 감소율과 증가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위기 이전 생산규모에서 2020년 3사분기까지 감소율이 가장 큰 나라는 스페인이고 그 다음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순으로 작아진다. 그러나 이 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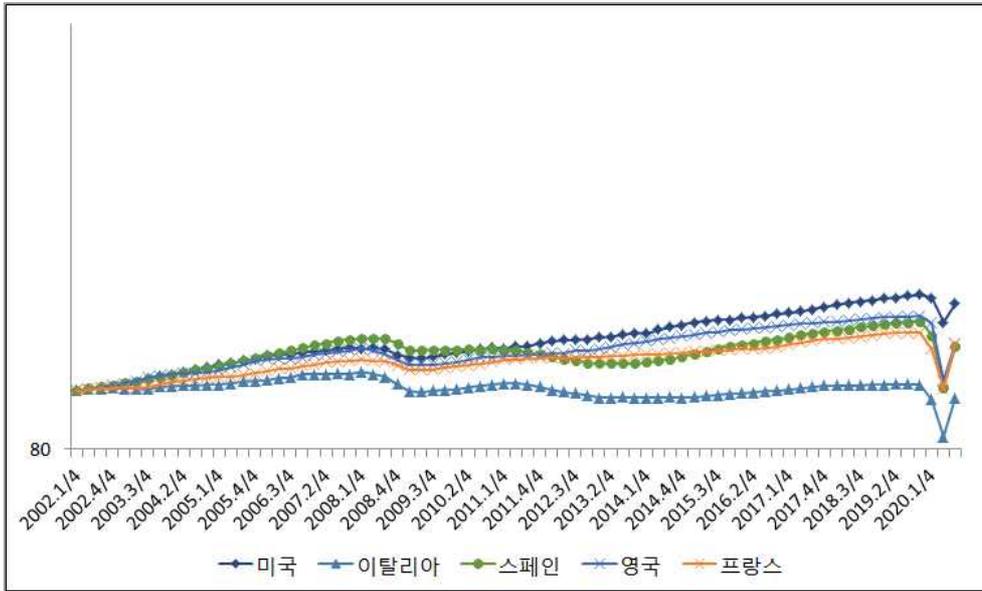
라 모두 감소율이 미국보다 더 크다.

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면, 스페인이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9.1% 감소한 상태고, 영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8.6% 감소한 상태고, 이탈리아는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5.1% 감소한 상태고, 프랑스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년 3사분기의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는 3.9%가 감소한 상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3사분기 회복력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생산 감소율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덜했다.¹⁴⁾ 미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4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3.4% 감소한 상태여서 이들 나라 전부는 미국보다 생산 감소 정도가 더 심하고 중국처럼 브이(V) 자 회복을 한 나라는 없다.¹⁵⁾

14) 한편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두 나라 다 4사분기에 각각 -1.3%, -2.0의 역성장을 하였다.

15)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위기를 맞게 되어 2020년 생산규모가 2002년 생산규모보다 작아진 상태다.

[그림 6] 로그눈금 미국과 유럽 주요국 1그룹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2002.1/4-2020.3/4)(2002.1/4=100)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https://stats.oecd.org/>)

(4) 여타 유럽 국가들

여기서는 스웨덴, 독일, 러시아, 핀란드의 상황을 살핀다. 스웨덴은 1백만명당 확진자수나 사망자수를 보면 앞서 다뤘던 코로나 19 대유행이 심각한 유럽나라들과 유사한 정도이지만 이런 나라들처럼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봉쇄조치를 심각하게 취하지 않은 나라고, 독일은 최근에는 코로나 19 대유행 양상이 앞의 유럽국가들만큼 심각한 상황이지만 초기엔 이들 나라보다는 덜 심각하였다. 러시아는 1백만명당 확진자수나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심각한 정도가 덜한 나라고 핀란드는 가장 양호한 나라에 속한다.

이들 나라군에서 아시아 주요국이나 코로나 19 대유행이 심각했던 유럽국가들처럼 2020년 2사분기에 성장률이 폭락하고 3사분기에 성장률을 회복한 나라는 독일과 스웨덴을 꼽을 수 있고 핀란드와 러시아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한편 러시아나 핀란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2019년 3사분기부터 이미 위기에 돌입했고, 독일은 2019년 4사분기부터 위기에 진입했고 스웨덴은 2020년 2사분기에만 마이너스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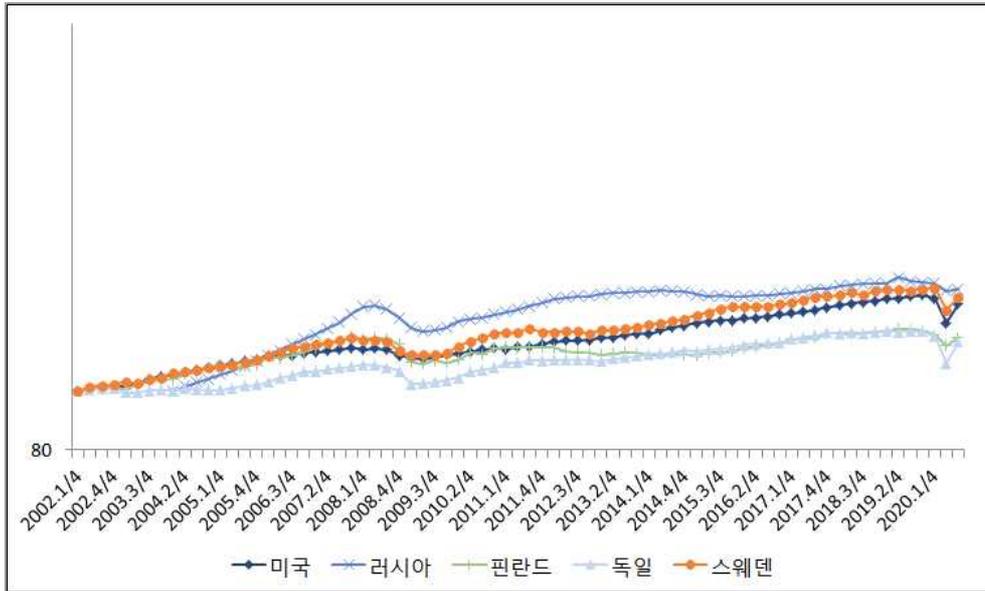
장을 했다.

러시아의 위기가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했고, 성장률 진폭이 작은 것(2사분기의 성장감소도 약하고 3사분기의 회복세도 약하다)은 코로나 19 대유행보다 먼저 시작된 세계적인 원유 및 가스의 과잉생산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세계적인 차원의 담합을 통한 생산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을 보면 이들 그룹에서 위기 이전 생산규모에서 2020년 3사분기까지 감소율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고 그 다음으로 독일, 스웨덴, 핀란드 순으로 작아진다. 그러나 러시아와 독일, 스웨덴은 감소율이 미국보다 더 크고 핀란드는 감소율이 미국보다 작다.

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면, 러시아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2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4.3% 감소한 상태고, 독일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4% 감소한 상태고, 스웨덴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3.4% 감소한 상태고, 핀란드는 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년 2사분기의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는 3%가 감소한 상태다. 러시아, 독일은 미국보다 생산감소가 조금 심한 정도이고, 스웨덴은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생산이 감소했고, 핀란드는 미국보다 약간 양호한 상태다. 이들 나라의 이번 위기에서의 생산감소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심각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는 양호한 상태다.

[그림 7] 로그눈금 미국과 유럽 주요국 2그룹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2002.1/4-2020.3/4)(2002.1/4=100: 러시아의 경우 2004.1/4=100)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https://stats.oecd.org/>)

(5) 중남미 주요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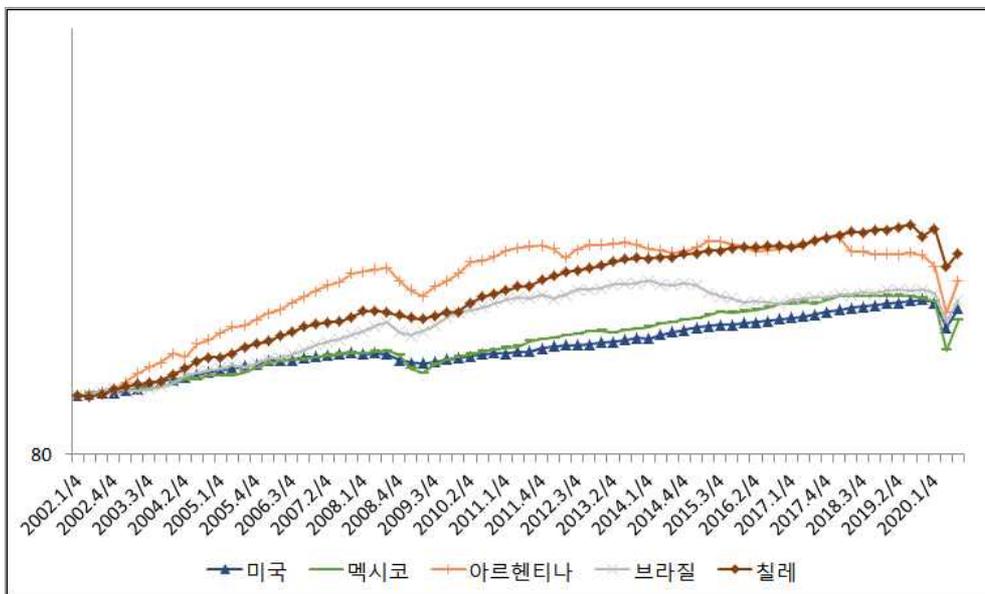
여기서는 중남미 주요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를 미국과 대조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 나라군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이나 코로나 19 대유행이 심각했던 유럽국가들처럼 2020년 2사분기에 성장률이 폭락하고 3사분기에 성장률을 회복했다. 한편 멕시코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먼저인 2019년 2사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2019년 4사분기부터, 브라질은 2020년 1사분기부터, 칠레는 2020년 2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림 8]을 보면 이들 그룹에서 위기 이전 생산규모에서 2020년 3사분기까지 감소율이 가장 큰 나라는 아르헨티나이고 그 다음으로 칠레, 멕시코, 브라질 순으로 작아진다. 네 나라 모두 미국보다 더 크다.

이를 숫자로 확인해 보면, 아르헨티나는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3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10.1% 감소한 상태고, 멕시코는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

규모가 8.9% 감소한 상태고, 칠레는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역시 8.9% 감소한 상태고, 브라질은 위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2019년 4사분기의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는 4.1%가 감소한 상태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는 미국보다 생산감소가 현저히 심각하고, 브라질의 생산감소는 미국보다 약간 더 큰 정도다.

[그림 8] 로그눈금 미국과 중남미 주요국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2002.1/4-2020.3/4)(2002.1/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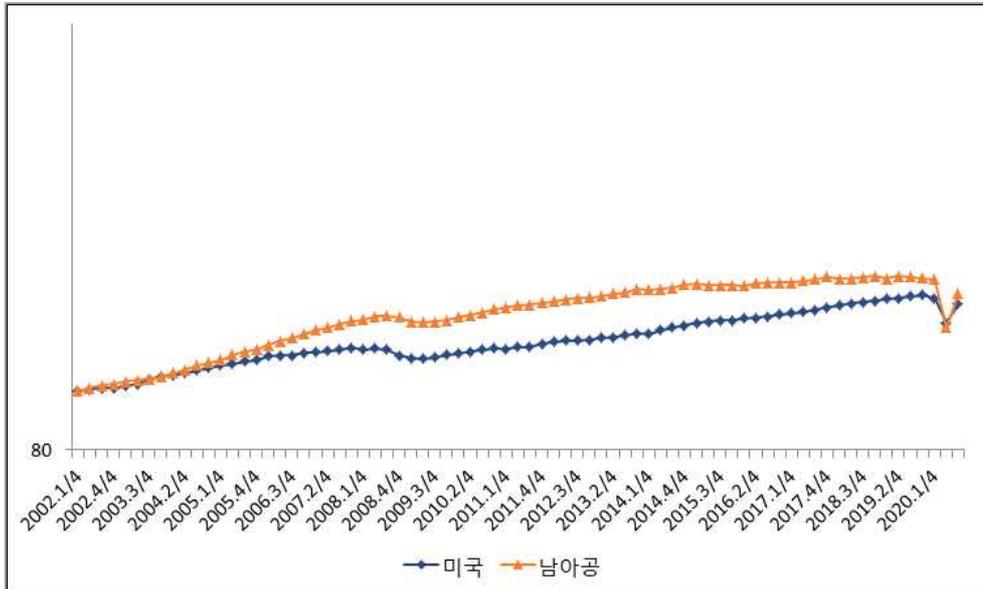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https://stats.oecd.org/>)

(6)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2사분기 생산규모에 비해 2020년 3사분기 생산규모가 6.3% 감소하였다. 미국보다 생산감소가 상당히 더 크다.

[그림 9] 로그눈금 미국과 남아공의 분기별 국내총생산 지수
(2002.1/4-2020.3/4)(2002.1/4=100)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https://stats.oecd.org/>)

(7) 소결: 경제위기와 방역의 관계

앞에서 살핀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코로나 19 통계, 봉쇄조치 통계¹⁶⁾ 등을 살펴보면 각국에서는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에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와 심각한 역성장이 있었고, 3사분기에는 봉쇄조치가 대체로 해제되었고 상당한 플러스 성장이 있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1사분기나 2사분기, 혹은 1사분기와 2사분기에 걸쳐서 봉쇄조치를 한차례 실시했는데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봉쇄조치를 두세 차례 실시했다.¹⁷⁾ 관련사항을 정리해 보자.

우선 영국이 지역별로 매우 긴 기간 동안 두세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했거나 하

16)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_lockdowns 를 참조하라.

17) 물론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가 등장하고 처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적인 봉쇄조치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28일, 27일, 43일간의 봉쇄조치를 실시했거나 하고 있고, 프랑스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5일, 45일, 이탈리아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0일, 13일, 독일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일, 90일의 봉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아일랜드 세 차례,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이스라엘, 폴란드, 포르투갈이 두 차례에 걸쳐 봉쇄조치를 실시했다.

이 중에서 4사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나라를 보면 오스트리아 -4.0%, 이탈리아 -2.0%, 프랑스 -1.3%, 독일 0.1%, 포르투갈 0.4%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중국은 4사분기 성장률이 2.6%, 한국 1.1%, 미국 1.0%로 발표되었고 지역별로 두세 차례 봉쇄조치를 실시한 영국의 경우 아직 4사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았다.¹⁸⁾

결국 이들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수,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 등과 관련한 각국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들 그룹의 경계에 있거나 모호한 나라들도 있다.

㉑그룹: 중국처럼 방역을 초기에 철두철미하게 하거나 도중에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검사, 추적, 치료'를 철저히 진행해 코로나 19 확산을 막는 데 성공하고 그 이후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나라. 여기에 대만, 베트남은 포함되고, 뉴질랜드나 호주도 이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서는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㉒그룹: 미국, 브라질처럼 방역에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도(어떤 경우는 폭증하고 있는데도) 봉쇄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경제회복을 꾀하는 나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미국 텍사스주 부지사는 일상으로 복귀해 '코로나 19에 취약한 노인들이 희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제를 위해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를 방치하는 나라라 하지 않을

18) 멕시코와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서 두 차례의 봉쇄조치가 실시되었는데 4사분기 성장률은 각각 3.1%와 1.9%로 발표되었다.

수 없다. 그런데 이들 그룹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다.

㉔그룹: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방역에 성공을 하지 못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해서(폭증까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봉쇄조치를 실시해 경제가 다시 역성장이나 심각하게 후퇴하는 것을 감수하고 있는 나라나 지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수상은 초기에 트럼프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으나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쳐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폭증하자 봉쇄조치를 두 세차례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도 경제성장률이 양호하기로는 ㉑그룹, ㉒그룹, ㉔그룹 순이다. 얼핏 방역과 경제 사이에 상치(trade off) 관계, 즉 경제를 위해서는 방역을 희생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자면 경제가 희생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에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다. 초기 방역을 철저히 한 중국이 그 뒤 성장을 완전 회복한 것을 보라. 물론 초기 방역에 실패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상당한 정도 퍼져 있는 경우에는 이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어느 그룹에 속할까? 한국 정부의 방역은 ㉑그룹, ㉒그룹, ㉔그룹 세 속성 모두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㉑그룹, ㉒그룹, ㉔그룹 시기를 조금씩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과 같은 의문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㉑그룹이 확실한 효험이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처방이 이루어져 코로나 19 위험이 거의 사라질 때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이들 경제도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㉒그룹은 확실한 효험이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처방이 이루어

질 때까지,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폭증하는데도 봉쇄조치를 계속 실시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봉쇄조치는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자진해서 감염위험이 뒤따르는 노동과 경제활동에서 일부 철수할 가능성은 없을 것인지? 만일 봉쇄조치를 다시 실시하거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이 뒤따르는 노동이나 경제활동에서 철수할 경우 이 그룹의 경제상황은 더 악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㉔그룹의 경우 4사분기 성장률이 보여주듯이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물론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봉쇄조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경제상황은 호전될 것이다. 한편 ㉑그룹과 ㉒그룹 중에서 새롭게 ㉔그룹에 합류하게 되는 나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이 각국 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보인다. 비록 백신이 개발되어 일부 나라에서 접종에 들어갔으나 그 효험, 접종 완료 시기, 백신 접종 효능기간 등 많은 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아 코로나 19 대유행의 지속기간이나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미확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경제위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과잉생산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분야별로 불균등한 위기의 양상

이번 위기는 분야별로 위기 정도가 매우 불균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위기 초기에 투자지출의 현저한 감소는 일반적이어서 특별히 거론한 필요는 없고, 이번 위기에서의 특징은 수출 감소율과,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그 증감의 진폭이 그리 크지 않은 소비지출의 감소율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소비지출의 감소가 문제인데 소비지출 중에서 상품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2사분기에는 -1.7% 감소했다가 3사분기엔 7.2%, 4사분기엔

7.0%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서비스 소비지출은 2사분기에는 무려 14%가 감소했고, 3사분기엔 7.3%, 4사분기엔 6.8%가 감소하였다. 상품소비 지출은 2사분기에 약간 감소했다가 3사분기와 4사분기에는 2사분기에 소비하지 못한 것까지 소비하는 것(반등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 소비해 상품소비지출은 예년의 성장률을 뛰어넘고 있다. 봉쇄조치가 풀려 소비를 늘리기도 했을 것이고,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라 할지라도 매장에 직접 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온라인 주문-택배를 통해 상품소비는 늘릴 수 있었을 것이며, 예년의 경우 레스토랑 및 주점 안에서의 취식 및 음주(서비스소비지출)가 포장 및 배달을 통해 레스토랑 및 주점 밖의 취식 및 음주(상품소비지출)로 바뀌면서 상품소비지출 성장률이 예년의 성장률을 뛰어넘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즉 상품소비지출의 높은 성장률은 서비스소비지출이 상품소비지출로 전환된 데에서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¹⁹⁾

반면 군집이나 대면접촉을 통한 서비스 구매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2사분기에는 전면적인 봉쇄조치 효과가 크게 발휘된 것으로 보이고 3사분기와 4사분기에는 봉쇄조치는 해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영업제한 및 소비자 스스로의 자제로 인해 여전히 서비스 소비지출이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서비스 소비지출 감소는 뒤에서 보겠지만 ‘레제 및接客업’, 그 중에서도 ‘식당 및 주점’업에서의 현저한 고용감소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자본주의적 발전이 심화된 지역이나 국가에서 서비스부문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https://www.brookings.edu/blog/future-development/2020/12/14/the-decline-and-recovery-of-consumer-spending-in-the-us/> 를 참조하라.

[표 1] 미국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국내총생산 | 3.1 | 3.3 | 3.1 | 2.5 | 2.3 | 2.0 | 2.1 | 2.3 | 0.3 | -9.0 | -2.8 | -2.5 |
| 소비지출 | 2.6 | 2.9 | 3.0 | 2.4 | 2.3 | 2.4 | 2.5 | 2.5 | 0.2 | -10.2 | -2.8 | -2.6 |
| 상품 | 4.7 | 4.5 | 4.2 | 2.9 | 3.0 | 3.9 | 4.2 | 3.7 | 3.1 | -1.7 | 7.2 | 7.0 |
| 서비스 | 1.6 | 2.2 | 2.5 | 2.1 | 2.0 | 1.8 | 1.7 | 1.9 | -1.1 | -14.0 | -7.3 | -6.8 |
| 투자지출 | 7.1 | 5.8 | 6.5 | 5.9 | 4.2 | 2.9 | 0.9 | -1.0 | -4.2 | -16.9 | -3.4 | 3.2 |
| 수출 | 4.4 | 4.6 | 2.6 | 0.5 | 0.3 | -1.3 | 0.2 | 0.4 | -2.6 | -23.9 | -14.6 | -11.0 |
| 수입 | 4.6 | 3.6 | 5.2 | 3.0 | 2.4 | 2.9 | 1.0 | -1.9 | -5.3 | -22.4 | -8.6 | -0.6 |
| 정부지출 | 1.5 | 1.8 | 2.4 | 1.5 | 1.7 | 2.3 | 2.2 | 3.0 | 2.7 | 2.1 | 0.3 | -0.6 |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표 2] 한국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
|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1/4 | 2/4 | 3/4 | 4/4 |
| 국내총생산(지출) | 3.0 | 3.1 | 2.4 | 3.1 | 1.8 | 2.1 | 2.0 | 2.3 | 1.4 | -2.7 | -1.1 | -1.4 |
| 민간소비 | 4.1 | 3.3 | 2.7 | 2.7 | 1.4 | 1.8 | 1.6 | 1.9 | -4.8 | -4.0 | -4.4 | -6.6 |
| 설비투자 | 10.5 | -4.4 | -9.2 | -5.5 | -17.4 | -7.0 | -2.3 | -2.0 | 7.3 | 4.1 | 10.6 | 5.6 |
| 건설투자 | 0.8 | -2.6 | -9.1 | -6.4 | -8.1 | -3.0 | -2.7 | 2.6 | 4.2 | -0.1 | -1.0 | -2.5 |
| 재화수출 | -0.1 | 2.9 | 3.8 | 6.3 | -0.9 | -0.5 | -0.1 | 3.4 | 6.3 | -11.5 | -0.3 | 3.7 |
| 재화수입 | 3.5 | 1.8 | -2.3 | 5.2 | -5.7 | -0.6 | 2.2 | 1.3 | 3.1 | -4.8 | -0.1 | 1.7 |
| 내수(재고제외) | 4.7 | 1.7 | -0.2 | 0.9 | -1.0 | 1.1 | 1.5 | 2.5 | 0.1 | -0.2 | -0.5 | -2.5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표 2]에서 보듯이 지출항목별 성장률 중에서 한국의 경우 다른 지출항목들에 비해 민간소비 지출 감소율이 가장 현저하다. 1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에는 미국보다 더 심하게 축소가 되었다. 특히 4사분기 미국의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6%의 역성장인데 한국의 민간소비 지출의 경우 -6.6%의 역성장이다. 차이가 매우 크다.

민간소비 지출 중 상품과 서비스 소비지출이 분류되어 공표가 되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역시 상품 소비지출이 온라인-택배 등을 통해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서비스 소비지출 감소가 현저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런 서비스 소비지출 감소는 내수의 4사분기 -2.5% 역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사분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승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서비스업 주요업종 생산지수 증가율을 통해 서비스업 내 주요 업종 상황을 살펴보자. 서비스업 전체 생산지수 증가율은 2020년 4사분기에 -2.0%를 기록하고 있다. 변동이 심한 업종을 보면, 일단 항공 운송업에서의 생산감소율이 매우 크다. 2사분기와 3사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4사분기에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58.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도 4사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9.1%의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도 열악하다.

서비스 업종 중 그 비중이 매우 큰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도 4사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6%와 -23.5%의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4%와 -38.9%의 역성장을 보여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로는 -39.5%의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이 경우 증권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엄청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데 4사분기 68.5%, 12월에 100.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업 내 소 업종별 편차가 너무나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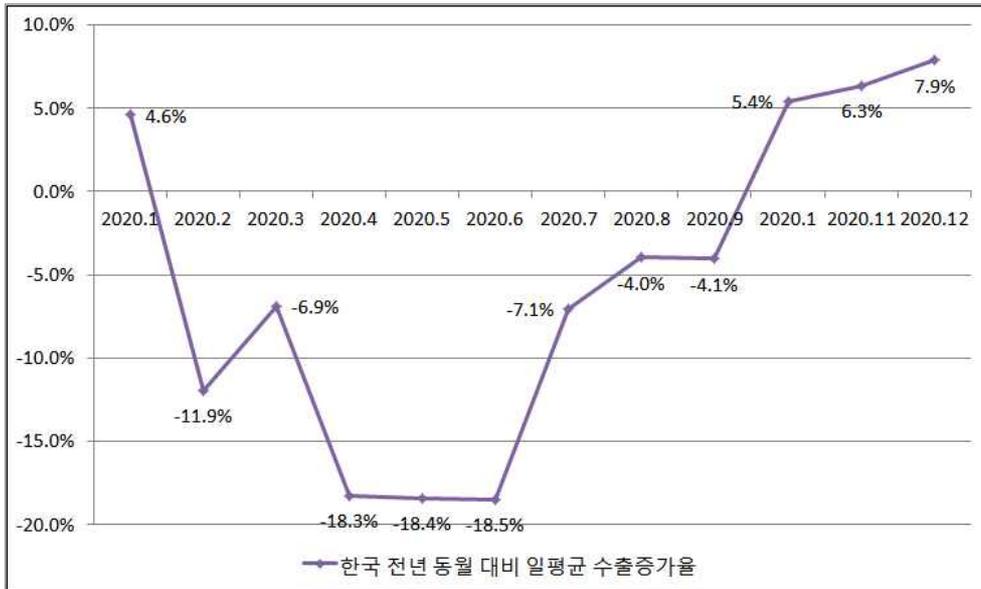
[표 3] 한국의 서비스업 주요업종 생산지수 전년 동기(월) 대비 증가율

| | 2019.1/4 | 2019.2/4 | 2019.3/4 | 2019.4/4 | 2020.1/4 | 2020.2/4 | 2020.3/4 | 2020.4/4 | 2020년 12월 |
|------------------------|----------|----------|----------|----------|----------|----------|----------|----------|-----------|
| 총지수 | 0.9% | 1.3% | 1.5% | 1.9% | -1.1% | -3.4% | -1.7% | -2.0% | -2.2% |
| 도매 및 소매업 | -0.7% | -0.3% | 0.2% | -0.6% | -3.1% | -4.1% | -1.7% | -1.5% | -0.5% |
| 운수 및 창고업 | 1.5% | -1.1% | 0.4% | -0.6% | -9.2% | -18.5% | -16.1% | -13.2% | -13.9% |
| 항공 운송업 | 6.9% | 3.5% | -0.2% | -1.0% | -31.2% | -63.5% | -64.7% | -58.6% | -59.0% |
| 숙박 및 음식점업 | -1.2% | -0.8% | -2.4% | 0.4% | -16.5% | -16.9% | -15.6% | -24.6% | -39.5% |
| 숙박업 | -2.7% | 2.7% | 1.2% | -3.2% | -29.9% | -43.3% | -27.3% | -31.6% | -43.4% |
| 음식점 및 주점업 | -1.0% | -1.4% | -3.0% | 1.0% | -14.6% | -12.9% | -13.7% | -23.5% | -38.9%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2.5% | 3.3% | 2.7% | 5.1% | 4.6% | 1.9% | -0.1% | -0.2% | 0.1%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4.2% | 23.5% | -5.5% | 18.1% | -15.9% | -48.5% | -46.0% | -49.1% | -54.3% |
| 금융 및 보험업 | 0.6% | 0.8% | 3.5% | 2.1% | 9.2% | 11.5% | 16.5% | 18.6% | 23.7%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15.5% | -11.7% | 2.8% | 11.1% | 32.0% | 55.8% | 86.7% | 68.5% | 100.7% |
| 부동산업 | -2.9% | -1.6% | 0.6% | 5.4% | 10.5% | 5.8% | 6.0% | 0.4% | 3.2%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0.9% | 2.6% | 2.8% | 4.4% | -5.0% | -12.6% | -9.9% | -11.6% | -12.3% |
| 교육 서비스업 | -0.4% | -0.7% | -0.2% | -0.7% | -4.9% | -5.5% | -4.2% | -3.9% | -4.4% |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3% | 9.9% | 5.8% | 8.4% | 4.1% | 2.0% | 0.3% | -0.4% | -1.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7% | 0.5% | -0.9% | 2.7% | -22.4% | -40.3% | -33.8% | -33.6% | -40.6%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2.1% | -0.8% | -2.6% | -0.6% | -9.9% | -7.5% | -5.2% | -10.6% | -12.7% |

자료: 한국은행

2사분기에 수출 감소가 현저했고 4사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그림 10]을 참조하라). 그런데 문제가 적지 않다. 연간 수출은 -5.4%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을 주요 품목 중심으로 보면 수출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5.4%), 정보통신기기(13.0%)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고, 석유제품(-40.3%)(원유가 하락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수송장비(-11.5%), 철강제품(-10.3%), 기계류와 정밀기기(-6.3%) 등 대부분이 상당한 정도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나 정보통신기기의 선방은 예외적이라 해야겠다.

[그림 10] 한국 전년 동월 대비 일평균 수출 증가율



자료: 관세청

설비투자는 2018년과 2019년이 매우 부진해서 기저효과가 발휘된 측면도 있지만 2020년 설비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3사분기 투자지출 증가율은 10.6%로 매우 높다. 설비투자로 판단할 경우 한국은 경제위기를 겪는 국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전형적인 경제순환 사이클(과잉생산을 통한 순환적 공황-불황-회복-활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 증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²⁰⁾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참조하라.

[표 4] 한국의 품목별 수출(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19 | 2020 | 증감률 |
|---------------|---------|---------|-------|
|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 8,232 | 8,641 | 5.0 |
| 2. 원료 및 연료 | 48,839 | 32,146 | -34.2 |
| ○ 석유제품 | 41,299 | 24,674 | -40.3 |
| 3. 경공업 제품 | 34,192 | 32,394 | -5.3 |
| ○ 직물 | 4,840 | 3,626 | -25.1 |
| ○ 의류 | 1,922 | 1,899 | -1.2 |
| ○ 고무타이어 및 튜브 | 3,488 | 2,960 | -15.1 |
| ○ 종이류 | 2,973 | 2,506 | -15.7 |
| 4. 중화학 공업품 | 450,970 | 439,608 | -2.5 |
| ○ 화공품 | 67,379 | 66,757 | -0.9 |
| ○ 철강제품 | 44,117 | 39,586 | -10.3 |
| ○ 기계류와 정밀기기 | 67,631 | 63,394 | -6.3 |
| ○ 전기·전자제품 | 171,443 | 178,525 | 4.1 |
| (가전제품) | 8,732 | 7,255 | -16.9 |
| (정보통신기기) | 32,574 | 36,825 | 13.0 |
| (반도체) | 96,588 | 101,842 | 5.4 |
| ○ 수송장비 | 87,675 | 77,591 | -11.5 |
| (승용자동차) | 40,455 | 35,639 | -11.9 |
| (자동차부품) | 21,665 | 18,028 | -16.8 |
| (선박) | 19,541 | 19,156 | -2.0 |
| 총계 | 542,233 | 512,789 | -5.4 |

자료: 관세청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비스 소비지출의 감소는 저임노동자들이 포진해 있는 서비스부문의 부진을 야기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케 해 준다. 또한 제조업이라 해도 수출을 통해서 살펴보면 삼성과 에스케이가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전부 심각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3)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재난구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증대하면서 세계 각국의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재정수지의 상당한 적자를 보면서 재난구제나 경기부양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정부부채가 심각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IMF의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 예측치는 미국 -18.7%, 독일 -8.2%, 프랑스 -10.8%, 이탈리아 -13.0%, 스페인 -14.1%, 일본 -14.2%, 영국 -16.5%, 중국 -11.9%, 한국 -3.2%이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과 중국에 비해 적자율이 매우 낮다.²¹⁾ 미국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보수주의로 유명한 독일보다도, 정부부채 수준이 매우 심각한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그리고 중국보다도 훨씬 낮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 이들 나라의 경제성장이 한국보다 더 급전직하해서 세입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비상한 경제위기 시기 한국의 재정지출 증가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늘어난 정부부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위기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더 편성이 되면서 적자비율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5] 주요국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대 국내총생산)

| | 재정수지 | | | | 정부부채 | | | |
|------|------|------|-------------|-------|-------|-------|-------------|-------|
| | 2018 | 2019 | 예측(2020.10) | | 2018 | 2019 | 예측(2020.10) | |
| | | | 2020 | 2021 | | | 2020 | 2021 |
| 세계 | -3.1 | -3.9 | -12.7 | -7.6 | 81.7 | 83.0 | 98.7 | 99.8 |
| 미국 | -5.8 | -6.3 | -18.7 | -8.7 | 106.9 | 108.7 | 131.2 | 133.6 |
| 유로존 | -0.5 | -0.6 | -10.1 | -5.0 | 85.8 | 84.1 | 101.1 | 100.0 |
| 독일 | 1.9 | 1.5 | -8.2 | -3.2 | 61.9 | 59.8 | 73.3 | 72.2 |
| 프랑스 | -2.3 | -3.0 | -10.8 | -6.5 | 98.1 | 98.1 | 118.7 | 118.6 |
| 이탈리아 | -2.2 | -1.6 | -13.0 | -6.2 | 134.8 | 134.8 | 161.8 | 158.3 |
| 스페인 | -2.5 | -2.8 | -14.1 | -7.5 | 97.6 | 95.5 | 123.8 | 124.1 |
| 일본 | -2.5 | -3.3 | -14.2 | -6.4 | 236.6 | 238.0 | 266.2 | 264.0 |
| 영국 | -2.2 | -2.1 | -16.5 | -9.2 | 85.7 | 85.4 | 108.0 | 111.5 |
| 캐나다 | -0.4 | -0.3 | -19.9 | -8.7 | 89.7 | 88.6 | 114.6 | 115.0 |
| 호주 | -1.2 | -3.9 | -10.1 | -10.5 | 41.5 | 45.0 | 60.4 | 70.2 |
| 한국 | 2.6 | 0.4 | -3.2 | -2.3 | 40.0 | 41.9 | 48.4 | 52.2 |
| 중국 | -4.5 | -6.3 | -11.9 | -11.8 | 47.0 | 52.0 | 61.7 | 66.5 |
| 인도 | -6.3 | -7.9 | -13.1 | -10.9 | 69.6 | 72.2 | 89.3 | 89.9 |
| 러시아 | 2.9 | 1.9 | -5.3 | -2.6 | 13.5 | 13.9 | 18.9 | 19.0 |
| 브라질 | -7.2 | -6.0 | -16.8 | -6.5 | 87.1 | 89.5 | 101.4 | 102.8 |
| 멕시코 | -2.2 | -2.3 | -5.8 | -3.4 | 53.6 | 53.7 | 65.5 | 65.6 |
| 남아공 | -4.1 | -6.3 | -14.0 | -11.1 | 56.7 | 62.2 | 78.8 | 82.8 |

자료: IMF(국제화폐기금)FISCAL MONITOR REPORTS

『Fiscal Monitor: Policies for the Recovery』 October 2020

4) 금융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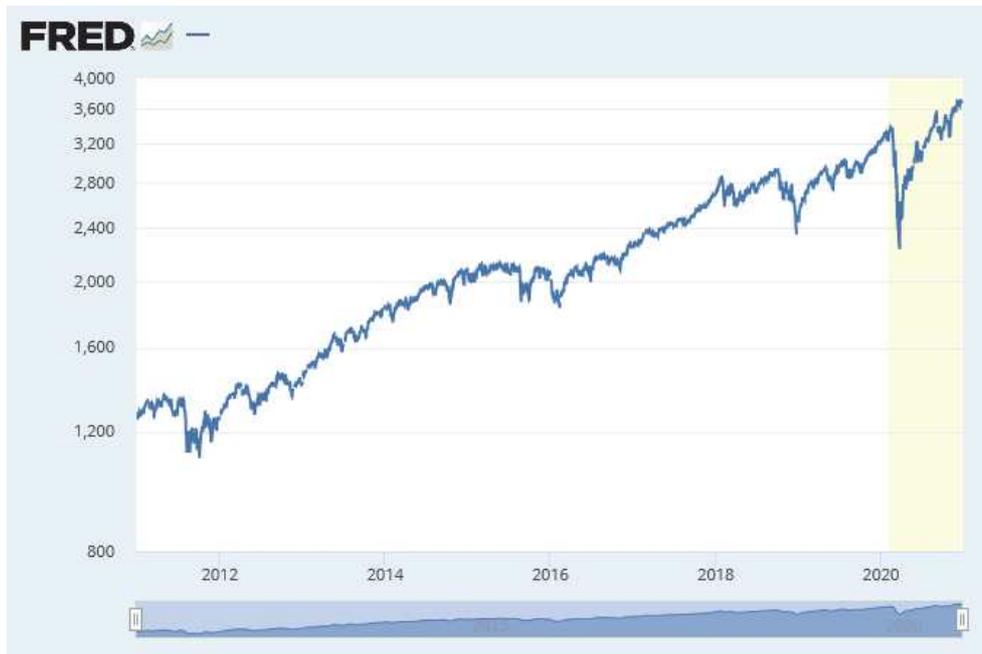
이번 위기 초기에 증권시장에서의 패닉이 상당했다. 주가가 폭락했고 유가 폭락 및 관련 주식 폭락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 달여 지나서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탤다. 제로 금리로의 복귀, 재난 구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제공 등의 정부정책과 제약산업 및 비대면 시대의 일부 수혜 기업들의 등장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탤다. 결국 이번 위기 초기 약 30% 가량 하락했다가 그 이후 약 70% 이상 상승했다.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하면 약 10% 이상 상승했다.

한편 미 대형주(S&P 500) 지수는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약 3배 이상 [200% 이상] 상승했고, 트럼프 취임 이후 약 70%가 상승했다.

여러모로 과열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로금리가 지속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서 과열 여부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위기 이후 벌어진 폭락과 폭등이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 11] 미국 S&P 500지수(2010.12.29.-2020.12.28.)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미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 역시 이번 위기 초기 때 약 30% 폭락한 이후 그 때부터 다시 약 80% 이상 상승하였다.

한편 나스닥 지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까지 약 10

배 상승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7-8배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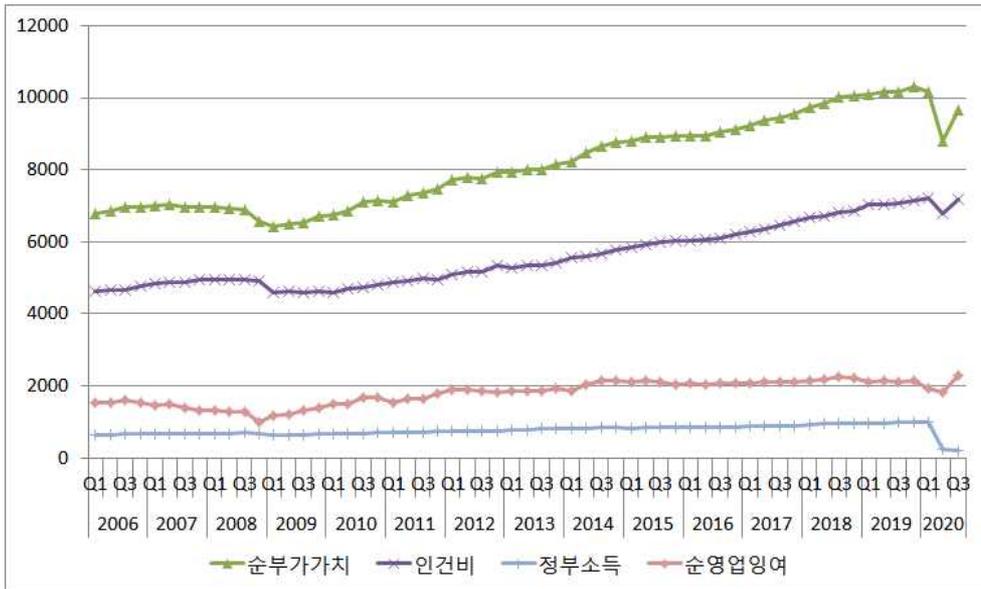
[그림 12] 미국 기술주(나스닥 시장) 지수(1971.2.5.-2020.12.28.)



출처: 미국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방준비은행(<http://www.stlouisfed.org/>)

그러면 최근의 주가상승은 기업이윤의 증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가? 미국 법인기업의 순 부가가치는 2020년 3/4분기에 반등하였으나 위기 이전 최고치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다. 순부가가치의 분배 상황을 보면 인건비는 위기 이전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순 영업잉여는 위기 이전 최고치를 약간 넘어섰는데 이것이 정부소득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생산세+수입세-보조금’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의 주가상승은 이런 순 영업잉여의 회복에 견주어 과도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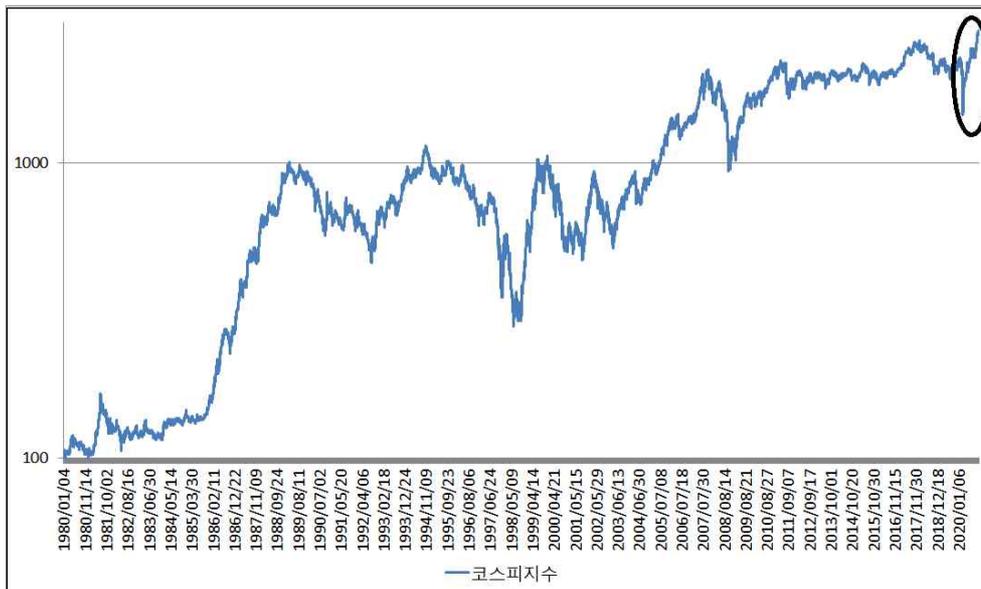
[그림 13] 미국 법인기업에서의 순부가가치와 그 구성(단위: 10억달러)(2006.1/4-2020.3/4)



자료: 미국 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

한국도 이번 위기 초기 2월 중순부터 주가가 약 한 달 간에 걸쳐 30% 이상 폭락했다가 폭락한 저점에서 12월 말까지 다시 약 90% 이상 상승하였다. 그러나 폭락 정도는 1997년 아이엠에프 위기, 닷컴 버블 붕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에 비해 덜하고 상승 정도도 조금 덜하다. 한편 주가폭락에 걸린 시간이나 폭등에 걸린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다른 때와 다르다.

[그림 14] 로그눈금 한국 코스피 지수(1980.1.4-2020.12.28.)



자료: 한국거래소

한편 제로금리나 초저금리에 따른 금융투기거품은 그 시기를 특정지을 수는 없으나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다. 저금리가 장기에 걸쳐 지속된다면 쉬 붕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증권시장에 포진해 있는 대기업들 일부의 연이은 파산 등이 도래하면 증권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떠도는 얘기처럼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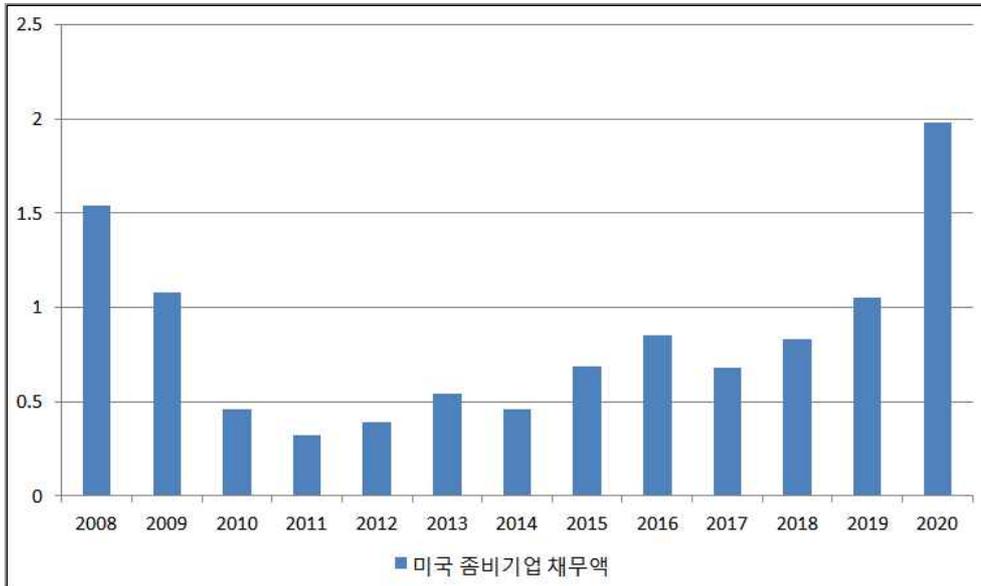
5) 좀비기업

세계 각국에서 ‘가동을 위해서는 구제금융이 필요하거나, 부채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를 겨우 갚아나가는’ 좀비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잉사, 델타에어라인, 메이시(Macy’s Incorp), 심지어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도 세계에서 최대이윤을 내던 석유회사 엑손모빌까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러셀 3000 지수 기업 중 약 4분의 1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좀비기업이 지고 있는 총 채무는 2008년 1.54조 달러에서 2020년 1.98조 달러로 증가하였다([그림 15] 참조).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 앞으로도

1-2년간 더 지속된다면 이런 좀비기업과 좀비기업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수는 더욱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5] 미국 좀비기업 채무액(단위: 조달러)



자료: 블룸버그 통신(Bloomberg)

6) 고용 및 실업 상황

대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고용 및 실업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세계경제의 중심이자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부터 살펴보자.

(1) 미국

①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

미국에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 상황 악화가 본격화한 3월의 취업자 규모는 전월에 비해 137만, 4월에는 2,079만이 줄어 3월과 4월 고용감소규모가 2,216만에 달했고 4월 취업자 규모가 이번 위기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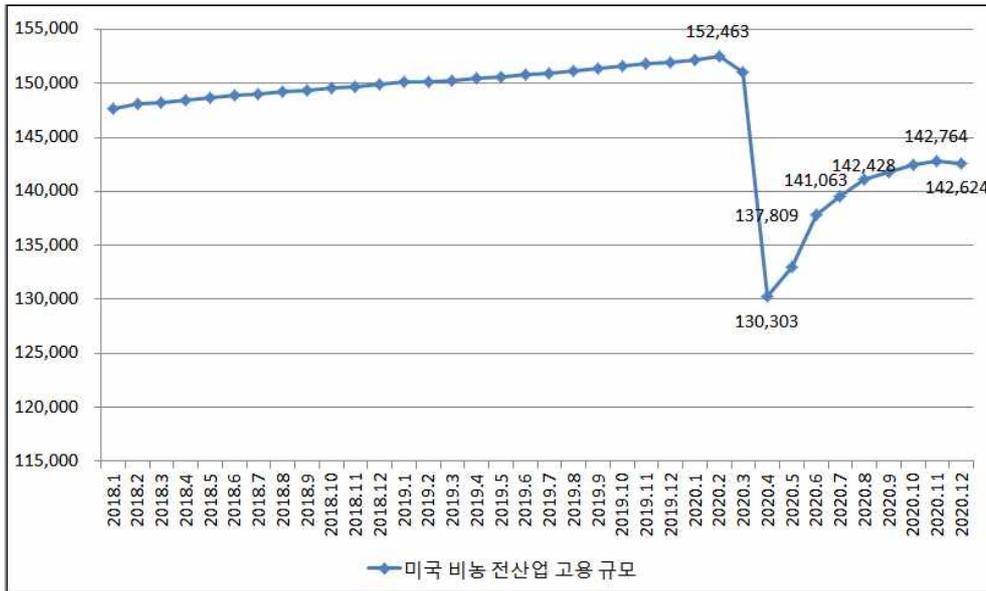
5월과 6월 주별로 락다운 해제가 되면서 취업자 규모가 5월 273만, 6월 478만, 7월 176만, 8월 149만, 9월 71만, 10월 65만, 11월 34만이 늘었다. 그런데 보다시피 증가는 하고 있지만 7월부터 그 증가규모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그래서 결국 4월부터 11월 사이 취업자가 1,246만이 늘었다. 즉 3월과 4월에 2,216만이 줄었다가 4월부터 11월 사이에 1,246만이 늘어 2월부터 11월 사이의 고용감소 규모는 970만에 이르고 있다. 여전히 상당한 규모다.

그런데 4월 이후 11월까지 매월 다소간 늘던 고용규모가 12월에는 다시 소폭이나마 줄어들기까지 했다. 약 14만! 결국 12월 고용규모는 2월에 비해 6.5%가 줄어든 상태다. 고용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했던 4월의 경우 2월에 비해 14.5%가 줄어들었다가 11월까지 일정하게 회복했으나, 전면적인 봉쇄조치가 해제된 지 6개월이 흘렀음에도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군집, 이동, 대면 서비스 등 고용감소가 일어나는 업종은 여러 업종에 걸쳐 있고 고용감소율이나 감소규모도 매우 큰 반면, 고용증가가 일어나는 업종은 아주 소수의 업종에 그치고 있고 고용증가율이나 고용증가 규모도 매우 작다. 예를 들어 전자에 해당하는 ‘식당 및 주점’업에서의 2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감소율은 19.9%, 감소규모는 약 245만에 이르고, ‘공연예술 및 관람스포츠’업에서 같은 기간 고용감소율은 39.3%, 감소규모는 20만에 이른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고용규모가 증가한 두 개의 업종은 택배업과 ‘창고클럽과 슈퍼센터 등’업인데 택배업의 경우 같은 기간에 고용증가율이 26.2%, 고용증가 규모는 22만에 달하고, ‘창고클럽과 슈퍼센터 등’업의 경우 같은 기간에 고용증가율이 8.8%, 고용증가 규모는 17만에 달한다. 즉 전자 업종에서의 고용감소 규모에 비해 후자 업종에서의 고용증가 규모가 턱없이 적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코로나 19 대유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국 대규모 재난구호와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재난에서의 구제에 그칠 뿐이다. 즉 코로나 19 대유행에서의 정부지출 증대는 다른 시기의 정부지출 증대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훨씬 더 적을 것이다. 즉 재정지출 승수가 작을 것이고 고용증대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지출이 방역 때문에 죽어있는 업종을 살리거나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근본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6] 미국의 취업자 규모 추이(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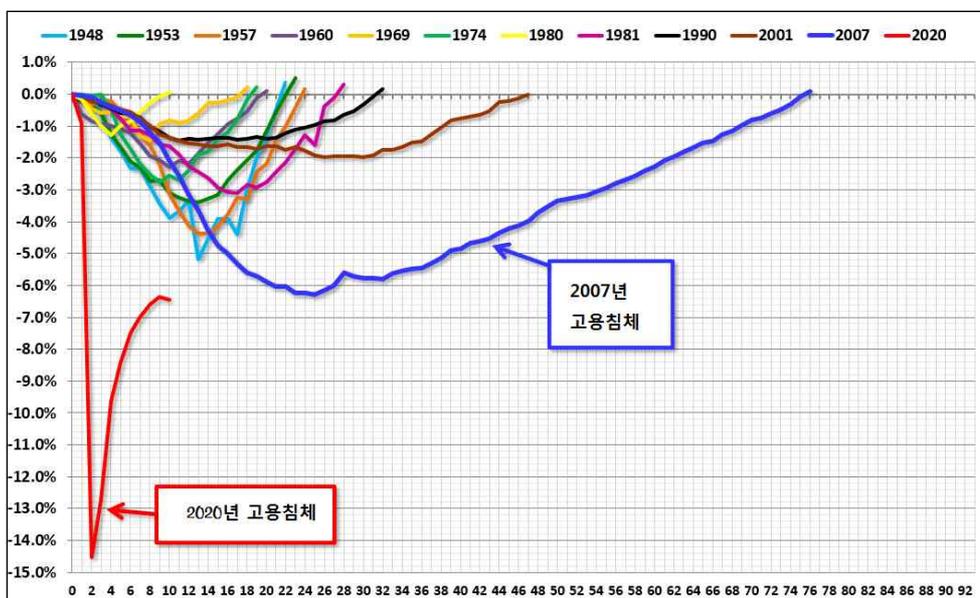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한편 신규실업발생과 (일시 해고된 노동자들의) 직장으로의 복귀가 동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월 신규실업자 규모만 보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기록한 최악의 1주 신규실업 규모(69만 5천명)를 넘어서 여전히 1주 80-90만 명 내외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부터는 급여보장프로그램(PPP)의 기한이 만료되는 기업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어서 해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각 경제위기 사이클에서 위기 직전 고용 규모에 비한 매월의 고용감소율을 보면, 이번 위기에서는 초기 고용감소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그리고 지나치게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물론 봉쇄조치(lockdown)나 집밖출입제한조치(stay-home)라는 행정명령과 이것의 해제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해제되었어도 고용은 정상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 4월 이후 줄어들던 고용감소율이 12월 들어 아주 조금이나마 커졌

다. 2020년 12월의 고용감소율만으로도 2007년 위기에서 가장 크게 고용이 감소한 정도의 수준이다. 고용감소율이 다시 커질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코로나 19 대유행의 양상, 성장회복세 혹은 성장침체, 새로운 금융위기 가능성 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2차대전 이후 미국의 경제위기에서의 고용감소율



횡축: 고용 정점 이후 경과한 개월수

종축: 위기 직전 고용 규모에 비한 매월의 고용감소율

출처: Calculated Risk(<https://www.calculatedriskblog.com/>)

② 미국의 산업 업종별 고용상황

[표 6]²²⁾을 통해 미국의 산업 업종별 고용상황을 보면 상품생산부문보다는 민간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중에서도 ‘레저 및接客업’에서의 고용감소규모가 크다. 12월 상품생산부문에서의 취업자는 2월에 비해 4%가 감소했으나(광업 및 벌채업 11.8%, 건설업 3%, 제조업 4.2% 각각 감소했다), 민간서비스업에서는 7%가 감

22) 필자의 몇몇 글에 유사한 표가 있었으나 이는 2020년 12월 최신의 통계까지 포함된 표임을 밝힌다.

소했다(‘운송, 유통, 유틸리티업 2.7%, 정보산업 9.3%, 금융업 1.2%, 전문 및 사업서비스 4%, 교육 및 의료서비스 5.3%, 레저 및 접객업 23.2% 각각 감소하였다).

상품생산부문에서는 '광업 및 벌채업'에서의 고용감소율이 크고 그 중에서도 채굴지원사업에서의 고용감소율이 크다. 다른 업종의 경우 4월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데 8월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 증가규모도 매우 미미하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외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원유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생산조절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셰일오일 생산 등의 급증으로 생산은 늘었는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원유수요는 감소해 연관산업인 채굴지원사업에서의 고용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운송장비업에서는 4월까지 고용감소율이 23%로 꽤 컸으나 그 이후 상당폭 회복하였다.

소매업의 고용감소 상황은 매우 불균등하다. '건자재 및 정원용품점'과 '잡화점'업에서는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각각 7.5%, 4.1% 증가하였으나, '의류 및 의류악세서리'업에서는 고용이 같은 기간에 24.5%가 감소하였다. 한편 같은 잡화점업이라도 '백화점'업에서는 같은 기간에 고용이 4.5% 감소하였으나 '창고 클럽과 수퍼센터 등'에서는 고용이 8.8% 증가하였다. '운수 및 창고업'의 소업종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항공운송'과 '지상 여객 운송'에서 같은 기간에 고용이 각각 23.4%와 25.5%가 감소하였으나 택배업에서는 고용이 같은 기간에 26.2%가 증가하였다. 이유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국내외) 이동은 줄어서 관련 업종인 '항공운송'과 '지상 여객 운송'에서의 고용은 줄고, 온라인 주문-배달이 늘어 택배업의 고용은 늘었을 것이다. 택배업 고용 증가세는 꾸준하고 그 속도도 놀랍다.

정보산업 중에서 '영화 및 사운드 레코딩 산업'의 고용감소는 2월과 12월 사이에 무려 42.1%에 이른다. 6월에 고용감소가 최고조에 이른 이후 별다른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고용감소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다.

[표 6]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산업 업종별 취업자 규모 변동(단위: 천명)

| | 2020.2 | 2020.4 | 2020.6 | 2020.8 | 2020.10 | 2020.12 | 2월-4월 | 2월-12월 | 4월/2월 | 6월/2월 | 8월/2월 | 10월/2월 | 12월/2월 |
|---------------------|---------|---------|---------|---------|---------|---------|---------|--------|--------|--------|--------|--------|--------|
| 비농 전산업 고용 규모 | 152,463 | 130,303 | 137,809 | 141,063 | 142,428 | 142,624 | -22,160 | -9,839 | 85.5% | 90.4% | 92.5% | 93.4% | 93.5% |
| 민간 | 129,718 | 108,527 | 116,492 | 119,046 | 120,901 | 121,223 | -21,191 | -8,495 | 83.7% | 89.8% | 91.8% | 93.2% | 93.5% |
| 상품생산 | 21,205 | 18,698 | 19,859 | 19,978 | 20,192 | 20,352 | -2,507 | -853 | 88.2% | 93.7% | 94.2% | 95.2% | 96.0% |
| 광업 및 벌채업 | 714 | 653 | 626 | 619 | 623 | 630 | -61 | -84 | 91.5% | 87.7% | 86.7% | 87.3% | 88.2% |
| 채굴지원사업 | 315 | 270 | 244 | 232 | 233 | 234 | -44 | -81 | 86.0% | 77.7% | 73.8% | 74.0% | 74.3% |
| 건설업 | 7,639 | 6,556 | 7,171 | 7,226 | 7,333 | 7,413 | -1,083 | -226 | 85.8% | 93.9% | 94.6% | 96.0% | 97.0% |
| 제조업 | 12,852 | 11,489 | 12,062 | 12,133 | 12,236 | 12,309 | -1,363 | -543 | 89.4% | 93.9% | 94.4% | 95.2% | 95.8% |
| 운송장비 | 1,743 | 1,342 | 1,568 | 1,599 | 1,600 | 1,619 | -401 | -124 | 77.0% | 89.9% | 91.7% | 91.8% | 92.9% |
| 민간서비스업 | 108,513 | 89,829 | 96,633 | 99,068 | 100,709 | 100,871 | -18,684 | -7,642 | 82.8% | 89.1% | 91.3% | 92.8% | 93.0% |
| 유통, 운송, 유틸리티 | 27,830 | 24,475 | 25,852 | 26,494 | 26,761 | 27,071 | -3,355 | -759 | 87.9% | 92.9% | 95.2% | 96.2% | 97.3% |
| 도매업 | 5,934 | 5,537 | 5,612 | 5,605 | 5,647 | 5,684 | -397 | -251 | 93.3% | 94.6% | 94.5% | 95.2% | 95.8% |
| 소매업 | 15,672 | 13,288 | 14,532 | 15,046 | 15,162 | 15,261 | -2,384 | -411 | 84.8% | 92.7% | 96.0% | 96.7% | 97.4% |
| 건자재 및 정원용품점 | 1,309 | 1,274 | 1,365 | 1,391 | 1,402 | 1,407 | -35 | 98 | 97.3% | 104.3% | 106.3% | 107.1% | 107.5% |
| 의류 및 의류악세서리 | 1,289 | 492 | 805 | 924 | 970 | 974 | -797 | -315 | 38.2% | 62.4% | 71.6% | 75.2% | 75.5% |
| 잡화점 | 3,047 | 2,869 | 3,116 | 3,222 | 3,127 | 3,173 | -178 | 126 | 94.2% | 102.3% | 105.7% | 102.6% | 104.1% |
| 백화점 | 1,079 | 811 | 971 | 1,054 | 1,042 | 1,030 | -268 | -48 | 75.2% | 90.0% | 97.8% | 96.6% | 95.5% |
| 창고 클럽과 슈퍼센터 등 | 1,968 | 2,059 | 2,146 | 2,168 | 2,084 | 2,142 | 90 | 174 | 104.6% | 109.0% | 110.1% | 105.9% | 108.8% |
| 운수 및 창고업 | 5,678 | 5,108 | 5,171 | 5,304 | 5,414 | 5,589 | -570 | -89 | 90.0% | 91.1% | 93.4% | 95.4% | 98.4% |
| 항공운송 | 511 | 433 | 379 | 406 | 386 | 392 | -78 | -120 | 84.7% | 74.1% | 79.4% | 75.5% | 76.6% |
| 지상 여객 운송 | 508 | 317 | 315 | 346 | 385 | 378 | -191 | -130 | 62.4% | 61.9% | 68.1% | 75.7% | 74.5% |
| 택배 | 848 | 861 | 907 | 928 | 948 | 1,070 | 13 | 222 | 101.6% | 107.0% | 109.4% | 111.8% | 126.2% |
| 정보산업 | 2,894 | 2,609 | 2,576 | 2,588 | 2,625 | 2,626 | -285 | -268 | 90.2% | 89.0% | 89.4% | 90.7% | 90.7% |
| 영화 및 사운드 레코딩 산업 | 456 | 220 | 216 | 239 | 267 | 264 | -236 | -192 | 48.3% | 47.4% | 52.5% | 58.5% | 57.9% |
| 금융업 | 8,845 | 8,566 | 8,605 | 8,648 | 8,715 | 8,743 | -279 | -102 | 96.8% | 97.3% | 97.8% | 98.5% | 98.8% |
| 전문 및 사업 서비스 | 21,550 | 19,254 | 19,725 | 20,071 | 20,443 | 20,692 | -2,296 | -858 | 89.3% | 91.5% | 93.1% | 94.9% | 96.0% |
| 여행사업 | 223 | 176 | 162 | 156 | 154 | 151 | -47 | -72 | 79.1% | 72.9% | 70.0% | 69.3% | 67.7% |
| 교육 및 의료 서비스 | 24,586 | 21,805 | 22,760 | 23,154 | 23,279 | 23,292 | -2,781 | -1,294 | 88.7% | 92.6% | 94.2% | 94.7% | 94.7% |
| 교육서비스 | 3,829 | 3,318 | 3,447 | 3,544 | 3,446 | 3,379 | -511 | -450 | 86.7% | 90.0% | 92.6% | 90.0% | 88.2% |
| 보건의료사회서비스 | 20,758 | 18,488 | 19,313 | 19,611 | 19,833 | 19,914 | -2,270 | -844 | 89.1% | 93.0% | 94.5% | 95.5% | 95.9% |
| 아동 돌봄 서비스 | 1,039 | 668 | 782 | 835 | 864 | 867 | -371 | -171 | 64.3% | 75.3% | 80.4% | 83.2% | 83.5% |
| 레저 및 접객업 | 16,867 | 8,549 | 11,933 | 12,704 | 13,382 | 12,959 | -8,318 | -3,908 | 50.7% | 70.7% | 75.3% | 79.3% | 76.8% |
|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 2,472 | 1,143 | 1,486 | 1,611 | 1,738 | 1,684 | -1,329 | -788 | 46.2% | 60.1% | 65.1% | 70.3% | 68.1% |
| 공연예술 및 스포츠 | 512 | 269 | 268 | 273 | 297 | 311 | -243 | -201 | 52.6% | 52.4% | 53.4% | 58.1% | 60.7% |
|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 | 14,394 | 7,406 | 10,447 | 11,093 | 11,644 | 11,275 | -6,988 | -3,120 | 51.5% | 72.6% | 77.1% | 80.9% | 78.3% |
| 숙박업 | 2,091 | 1,179 | 1,291 | 1,313 | 1,436 | 1,426 | -912 | -666 | 56.4% | 61.7% | 62.8% | 68.7% | 68.2% |
| 식당 및 주점 | 12,303 | 6,227 | 9,156 | 9,780 | 10,208 | 9,849 | -6,076 | -2,454 | 50.6% | 74.4% | 79.5% | 83.0% | 80.1% |
| 정부 | 22,745 | 21,776 | 21,317 | 22,017 | 21,527 | 21,401 | -969 | -1,344 | 95.7% | 93.7% | 96.8% | 94.6% | 94.1% |
| 연방정부 | 2,867 | 2,893 | 2,883 | 3,164 | 2,988 | 2,908 | 26 | 41 | 100.9% | 100.6% | 110.4% | 104.2% | 101.4% |
| 주정부 | 5,199 | 4,993 | 4,973 | 4,988 | 4,850 | 4,826 | -206 | -373 | 96.0% | 95.7% | 95.9% | 93.3% | 92.8% |
| 지방정부 | 14,679 | 13,890 | 13,461 | 13,865 | 13,689 | 13,667 | -789 | -1,012 | 94.6% | 91.7% | 94.5% | 93.3% | 93.1% |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Bureau of Labor Statistics)

금융업은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1.2% 감소에 그치고 있고, 전문 및 사업

서비스 중 여행업은 2월과 4월 사이에 고용감소가 20.9%에 이르렀는데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감소율은 32.3%에 이르러 고용사정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많은 업종에서 4월 이후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데 여행업은 그렇지 않다.

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16.5% 감소했다. 2월과 4월 사이에 35.7%가 감소했는데 그 이후 약간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레저 및 접객업의 경우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23.2% 감소했다. 2월과 4월 사이에 49.3%가 감소했는데 그 이후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리크리에이션’업의 경우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31.9% 감소했다. 그 중에서 ‘공연예술 및 관람스포츠’업의 경우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39.3% 감소했다. 고용감소가 가장 심한 업종 중의 하나다. 4월 이후 별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의 경우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이 21.7% 감소했고, 그 중에서 숙박업은 31.8%, ‘식당 및 주점’업은 19.9% 감소했다. 4월에서의 개선 정도를 보면 ‘식당 및 주점’업에서의 개선이 더디다.

고용규모로 보면 상품생산부문에서는 같은 기간에 85만명이 감소했으나 민간서비스업에서는 764만명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저 및 접객업’의 고용감소가 391만명이 감소했고, ‘레저 및 접객업’ 중에서 ‘식당 및 주점업’에서의 고용감소가 245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는 달리 주정부, 지방정부도 고용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줄어든 세입에 맞춰 고용을 조정하고 있어서다.

결론적으로 업종별 편차가 상당하고 ‘식당 및 주점’업 같은 저임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에서의 고용감소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대로 일부 업종에서 고용 증가가 있기도 하나 업종수나 고용증가 규모가 얼마 안되고 대신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업종수도 많고 고용감소 규모도 크다. 그래서 전자가 후자를 상쇄할 수 없어서 코로나 19 대유행이 지속되는 한 고용문제는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미국의 실업 상황

미국의 공식실업률은 코로나 19 봉쇄조치가 취해지기 전인 2월에 3.5%, 그리고 3월에 4.4%였다가, 봉쇄조치의 영향이 전면적이었던 4월 실업률이 14.8%을 보였다. 그러다가 봉쇄조치가 해제되기 시작한 5월에는 13.3%, 봉쇄조치가 전면 해제된 6월에는 11.1%, 7월에는 10.2%, 8월에는 8.4%, 9월에는 7.8%를 기록하는 등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결국 10월엔 6.9%, 11월엔 6.7%, 12월엔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11월과 동일한 6.7%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노동부는 이 실업률들이 추계오류로 과소 추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실업자로 분류할 사람들을 취업자로 분류했다는 것인데 그 수치가 크게 잡으면 4월에 무려 5%포인트, 5월에 3%포인트, 6월에 1%포인트, 7월에 1%포인트, 8월에는 0.7%포인트, 9월에는 0.4%포인트, 10월에는 0.3%포인트, 11월에는 0.4%포인트, 12월에는 0.6%포인트에 달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면 실업률은 4월 19.8%, 5월 16.3%, 6월 12.1%, 7월 11.2%, 8월 9.1%, 9월 8.2%, 10월 7.2%, 11월 7.1%, 12월 7.3%까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4월 이후 400-700만 내외의 비경제활동인구의 급증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과소 추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이후 실업률에 3-4%포인트가 추가되어야 제대로 된 실업률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12월의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규모는 4월과 5월에 이어 다시 500만을 넘고 있어 월별 규모로 보면 이번 위기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12월 실질 실업률은 여전히 10%를 넘는 실업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도의 실업률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최고 실업률 10.0%를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실업상황이 봉쇄조치가 해제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10월에서 12월의 실업률이 그렇다. 이 기간에 실업률이 거의 감소하고 있지 않고 전년대비 비경제활동인구 급증까지 고려하면

12월의 실업상황은 10월에 비해 꽤 악화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할 가능성이 다분한데 이에 따라 고용상황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이 정도의 회복도 대대적인 정부지출 증대와 제로이자율로의 복귀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대와 금융투기 및 불안정을 댓가로 한 것이다.

(2) 한국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고용 상황을 알아보자.

① 한국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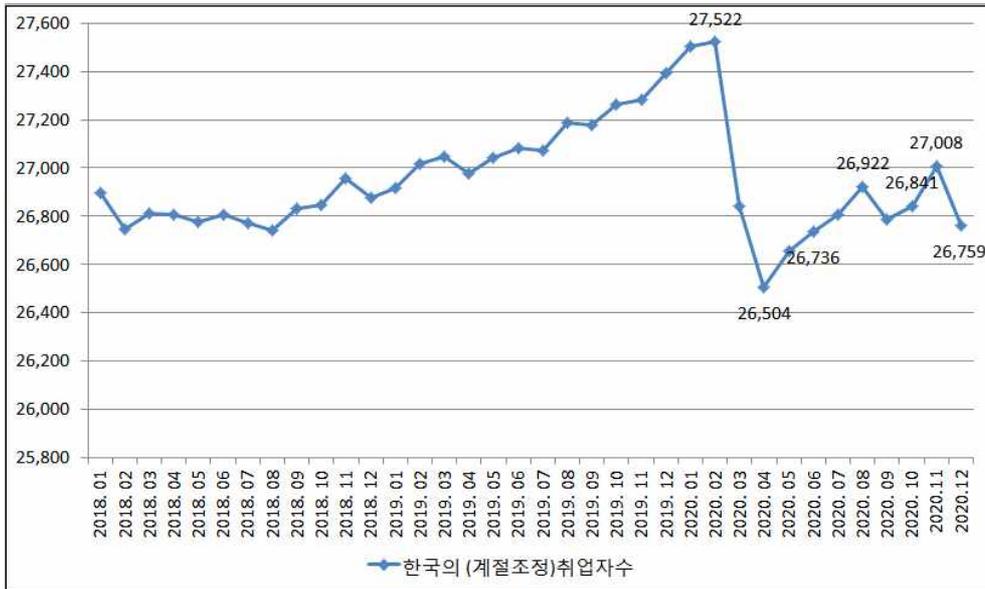
코로나 이후 한국의 취업자(계절조정) 규모는 4월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5월 초 생활방역으로 돌아간 이후 8월까지 점차 증가했다. 그러다가 2차 유행의 여파로 9월 취업자수(계절조정)가 다시 감소한 뒤 다시 11월까지 증가했다가 12월에 대폭 감소하였다.

4월의 취업자규모는 2월에 비해 약 102만명이 줄었다가 8월엔 60만명이 줄어든 상태였다가 9월엔 다시 약 74만명이 줄어든 뒤 11월엔 51만으로 줄어든 뒤 12월엔 2월에 비해 다시 76만이 줄어들었다. 취업자 규모가 이번 위기 와중에서 가장 적었던 4월에 비해서 12월 취업자 규모는 약 25만밖에 늘지 않았다. 결국 4월까지 줄어든 취업자 규모의 약 4분의 1 정도가 다시 취업을 했을 뿐이다.

취업자 감소율은 4월에 $100-96.3=3.7\%$ 였다가 12월엔 $100-97.2=2.8\%$ 다 ([그림 18]과 [표 7]²³⁾ 참조)

23) 필자의 몇몇 글에 유사한 표가 있었으나 이는 2020년 8월 최신의 통계까지 포함된 표임을 밝힌다.

[그림 18]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계절조정) 취업자 규모 변동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표 7]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전체 취업자 변동(단위: 천명)

| | 2020.02 | 2020.03 | 2020.04 | 2020.05 | 2020.06 | 2020.07 | 2020.08 | 2020.09 | 2020.10 | 2020.11 | 2020.12 |
|----------------------|---------|---------|---------|---------|---------|---------|---------|---------|---------|---------|---------|
| 한국의 (계절조정)취업자수 | 27,522 | 26,842 | 26,504 | 26,657 | 26,736 | 26,808 | 26,922 | 26,787 | 26,841 | 27,008 | 26,759 |
| 전월대비 (계절조정)취업자 증감 | 19 | -680 | -338 | 153 | 79 | 72 | 114 | -135 | 54 | 167 | -249 |
| 2월 대비 (계절조정)취업자 증감 | 0 | -680 | -1,018 | -865 | -786 | -714 | -600 | -735 | -681 | -514 | -763 |
| | '02/'02 | '03/'02 | '04/'02 | '05/'02 | '06/'02 | '07/'02 | '08/'02 | '09/'02 | '10/'02 | '11/'02 | 12/'02 |
| 2월 대비 (계절조정)취업자 증감비율 | 100.0% | 97.5% | 96.3% | 96.9% | 97.1% | 97.4% | 97.8% | 97.3% | 97.5% | 98.1% | 97.2% |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② 한국의 부문별 고용상황

㉠ 한국의 연령대별 취업자 변동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연령대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2월부터 4월까지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큰 연령대는 '15-19세', '60세 이상'으로 각각 $100-72.6=27.4\%$ 와 $100-91.8=8.2\%$ 였다. 2월에서 12월까지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큰 연령대는 '15-19세'와 '20-29세', 그리고 '30-39세'다. '15-19세' 연령대의 취업자 감소율

은 6월에는 대폭 낮아졌다가 12월엔 다시 증가하였다. 그래도 4월의 감소율보다는 높다. ‘30-39세’의 경우 감소한 취업자수로는 가장 많은 25만을 차지하고 있고, 12월의 취업자감소율이 4월의 취업자감소율보다 더 높다. 1.4%포인트가 추가적으로 감소하였다. 12월의 취업자 감소율이 더 낮은 연령대는 ‘40-49세’, ‘20-29세’ 연령대도 마찬가지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4월엔 취업자감소율이 8.2%로 꽤 높았는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12월엔 1.7%에 그치고 있다.

한편 3차 유행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대는 [표 8]에는 안 나와 있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8.9%포인트가 감소한 ‘15-19세’ 연령대고 수적으로 보면 5만 7천명이 감소한 ‘20-29세’ 연령대다. 그 다음으로는 비율상으로도 수적으로도 ‘30-39세’, ‘50-59세’ 연령대다.

[표 8]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연별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 2020. 02 | 2020. 04 | 2020. 06 | 2020.08 | 2020.10 | 2020.12 | 2월-4월 | 2월-12월 | 4월/2월 | 6월/2월 | 8월/2월 | 10월/2월 | 12월/2월 |
|----------|----------|----------|----------|---------|---------|---------|-------|--------|-------|-------|-------|--------|--------|
| 15 - 29세 | 3,888 | 3,679 | 3,733 | 3,776 | 3,751 | 3,683 | -209 | -205 | 94.6% | 96.0% | 97.1% | 96.5% | 94.7% |
| 15 - 19세 | 179 | 130 | 175 | 155 | 164 | 146 | -49 | -33 | 72.6% | 97.8% | 86.6% | 91.6% | 81.6% |
| 20 - 29세 | 3,709 | 3,549 | 3,557 | 3,621 | 3,586 | 3,537 | -160 | -172 | 95.7% | 95.9% | 97.6% | 96.7% | 95.4% |
| 30 - 39세 | 5,537 | 5,361 | 5,355 | 5,309 | 5,273 | 5,285 | -176 | -252 | 96.8% | 96.7% | 95.9% | 95.2% | 95.4% |
| 40 - 49세 | 6,484 | 6,326 | 6,311 | 6,318 | 6,276 | 6,286 | -158 | -198 | 97.6% | 97.3% | 97.4% | 96.8% | 96.9% |
| 50 - 59세 | 6,470 | 6,278 | 6,316 | 6,390 | 6,344 | 6,327 | -192 | -143 | 97.0% | 97.6% | 98.8% | 98.1% | 97.8% |
| 60세이상 | 5,296 | 4,860 | 4,981 | 5,097 | 5,168 | 5,205 | -436 | -91 | 91.8% | 94.1% | 96.2% | 97.6% | 98.3% |
| 15 - 64세 | 24,645 | 23,895 | 24,004 | 24,097 | 23,989 | 23,928 | -750 | -717 | 97.0% | 97.4% | 97.8% | 97.3% | 97.1% |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㉞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변동

산업별로 보면 2월에서 12월 사이에 취업자감소율이 큰 업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숙박 및 음식점업’ 11.5%다. 같은 기간에 취업자 감소 규모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6만, ‘도매 및 소매업’ 15만, ‘제조업’ 12만, ‘교육서비스업’ 9만 순으로 크다. 비율로 보나 취업자 감소 규모로 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문제다.

취업자 증가율이 큰 업종은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14.7%가 증가했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큰 곳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약 4만 2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만 8천 순이다.

한편 취업자 감소가 가장 컸던 4월보다 12월이 더 큰 곳은 ‘도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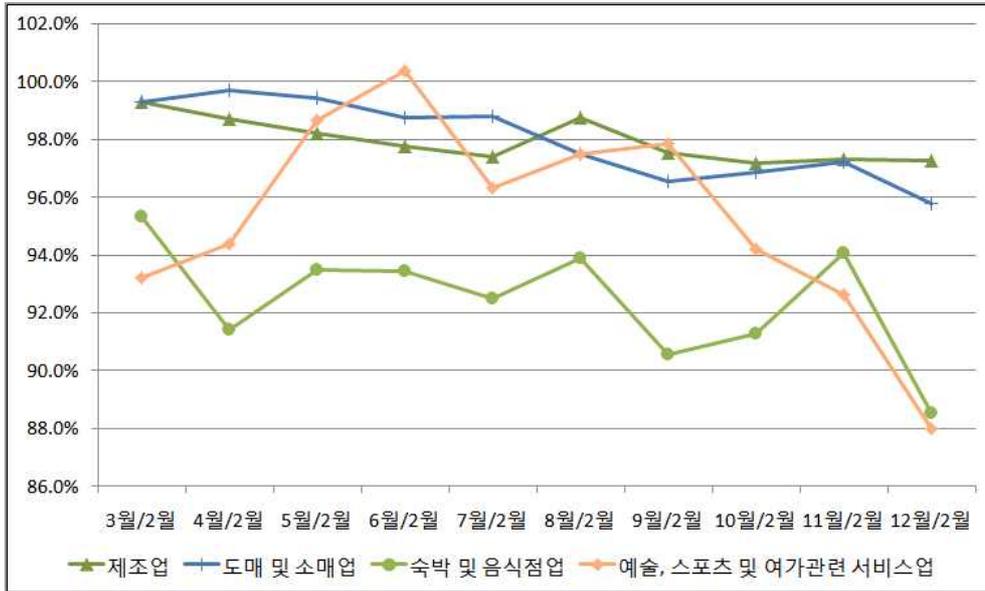
[표 9]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 2020. 02 | 2020. 04 | 2020. 06 | 2020. 08 | 2020. 10 | 2020. 12 | 2월-4월 | 2월-12월 | 4월/2월 | 6월/2월 | 8월/2월 | 10월/2월 | 12월/2월 |
|--------------------------|----------|----------|----------|----------|----------|----------|-------|--------|--------|--------|--------|--------|--------|
| 농업, 임업 및 어업 | 1,529 | 1,425 | 1,411 | 1,394 | 1,420 | 1,514 | -104 | -15 | 93.2% | 92.3% | 91.2% | 92.9% | 99.0% |
| 광업 | 14 | 15 | 13 | 11 | 11 | 13 | 1 | -1 | 107.1% | 92.9% | 78.6% | 78.6% | 92.9% |
| 제조업 | 4,454 | 4,397 | 4,354 | 4,399 | 4,328 | 4,332 | -57 | -122 | 98.7% | 97.8% | 98.8% | 97.2% | 97.3%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77 | 65 | 72 | 74 | 75 | 74 | -12 | -3 | 84.4% | 93.5% | 96.1% | 97.4% | 96.1% |
|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143 | 149 | 154 | 154 | 156 | 164 | 6 | 21 | 104.2% | 107.7% | 107.7% | 109.1% | 114.7% |
| 건설업 | 2,018 | 1,940 | 1,970 | 2,046 | 2,045 | 2,038 | -78 | 20 | 96.1% | 97.6% | 101.4% | 101.3% | 101.0% |
| 도매 및 소매업 | 3,560 | 3,549 | 3,516 | 3,470 | 3,449 | 3,410 | -11 | -150 | 99.7% | 98.8% | 97.5% | 96.9% | 95.8% |
| 운수업 | 1,507 | 1,450 | 1,490 | 1,484 | 1,472 | 1,507 | -57 | 0 | 96.2% | 98.9% | 98.5% | 97.7% | 100.0% |
| 숙박 및 음식점업 | 2,285 | 2,089 | 2,135 | 2,145 | 2,086 | 2,023 | -196 | -262 | 91.4% | 93.4% | 93.9% | 91.3% | 88.5%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849 | 852 | 859 | 843 | 826 | 851 | 3 | 2 | 100.4% | 101.2% | 99.3% | 97.3% | 100.2% |
| 금융 및 보험업 | 796 | 793 | 777 | 767 | 769 | 772 | -3 | -24 | 99.6% | 97.6% | 96.4% | 96.6% | 97.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548 | 525 | 512 | 510 | 504 | 493 | -23 | -55 | 95.8% | 93.4% | 93.1% | 92.0% | 90.0%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185 | 1,144 | 1,147 | 1,160 | 1,173 | 1,187 | -41 | 2 | 96.5% | 96.8% | 97.9% | 99.0% | 100.2%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343 | 1,309 | 1,310 | 1,357 | 1,396 | 1,381 | -34 | 38 | 97.5% | 97.5% | 101.0% | 103.9% | 102.8%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129 | 1,053 | 1,065 | 1,115 | 1,191 | 1,171 | -76 | 42 | 93.3% | 94.3% | 98.8% | 105.5% | 103.7% |
| 교육 서비스업 | 1,862 | 1,758 | 1,812 | 1,791 | 1,766 | 1,774 | -104 | -88 | 94.4% | 97.3% | 96.2% | 94.8% | 95.3%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385 | 2,254 | 2,351 | 2,392 | 2,344 | 2,319 | -131 | -66 | 94.5% | 98.6% | 100.3% | 98.3% | 97.2%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516 | 487 | 518 | 503 | 486 | 454 | -29 | -62 | 94.4% | 100.4% | 97.5% | 94.2% | 88.0%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1,229 | 1,147 | 1,188 | 1,187 | 1,190 | 1,153 | -82 | -76 | 93.3% | 96.7% | 96.6% | 96.8% | 93.8% |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취업자 감소율과 취업자 감소 규모를 적절히 고려해 선별한 주요 업종의 취업자 감소 양상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율은 앞의 두 업종에 비해 더 작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보다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이들 업종의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식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9]를 참조하라).

[그림 19]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주요 업종의 2월 대비 매일 취업자 비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㉔ 한국의 직업별 취업자 변동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 종사자’의 취업자 감소율이 10.3%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판매 종사자’ 4.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다. ‘관리자’는 7.2%가 오히려 증가했고, ‘사무 종사자’도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경우 2월과 4월 사이에 감소한 것보다 2월과 12월 사이 감소한 것이 더 크고,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2월과 4월 사이에는 25만이라는 큰 폭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가 2월과 12월 사이 통틀어서 보면 약 3만명이 증가했다.

[표 10]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직업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 2020. 02 | 2020. 04 | 2020. 06 | 2020. 08 | 2020. 10 | 2020. 12 | 2월-4월 | 2월-12월 | 4월/2월 | 6월/2월 | 8월/2월 | 10월/2월 | 12월/2월 |
|-----------------|----------|----------|----------|----------|----------|----------|-------|--------|--------|--------|--------|--------|--------|
| 관리자 | 377 | 401 | 395 | 396 | 405 | 404 | 24 | 27 | 106.4% | 104.8% | 105.0% | 107.4% | 107.2% |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5,632 | 5,413 | 5,455 | 5,481 | 5,428 | 5,470 | -219 | -162 | 96.1% | 96.9% | 97.3% | 96.4% | 97.1% |
| 사무 종사자 | 4,744 | 4,704 | 4,673 | 4,672 | 4,659 | 4,725 | -40 | -19 | 99.2% | 98.5% | 98.5% | 98.2% | 99.6% |
| 서비스 종사자 | 3,227 | 2,982 | 3,049 | 3,020 | 3,013 | 2,894 | -245 | -333 | 92.4% | 94.5% | 93.6% | 93.4% | 89.7% |
| 판매 종사자 | 2,953 | 2,923 | 2,928 | 2,880 | 2,820 | 2,821 | -30 | -132 | 99.0% | 99.2% | 97.5% | 95.5% | 95.5%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1,466 | 1,374 | 1,348 | 1,322 | 1,354 | 1,440 | -92 | -26 | 93.7% | 92.0% | 90.2% | 92.4% | 98.2%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2,371 | 2,284 | 2,287 | 2,355 | 2,369 | 2,352 | -87 | -19 | 96.3% | 96.5% | 99.3% | 99.9% | 99.2%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3,037 | 2,964 | 2,935 | 2,954 | 2,920 | 2,915 | -73 | -122 | 97.6% | 96.6% | 97.3% | 96.1% | 96.0% |
| 단순노무 종사자 | 3,724 | 3,474 | 3,648 | 3,851 | 3,877 | 3,752 | -250 | 28 | 93.3% | 98.0% | 103.4% | 104.1% | 100.8% |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㉔ 한국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동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2월과 12월 사이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는 취업자 감소율이 11.1%,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에서는 10.7%, ‘임시근로자’에서는 6.7% 발생했다.

2월과 4월 사이의 취업자 감소보다 2월과 12월 사이의 취업자 감소가 큰 경우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서다.

2월과 4월 사이에 임금근로자가 약 81만이 줄어들었다가 2월과 12월 사이에는 약간 호전되어 약 53만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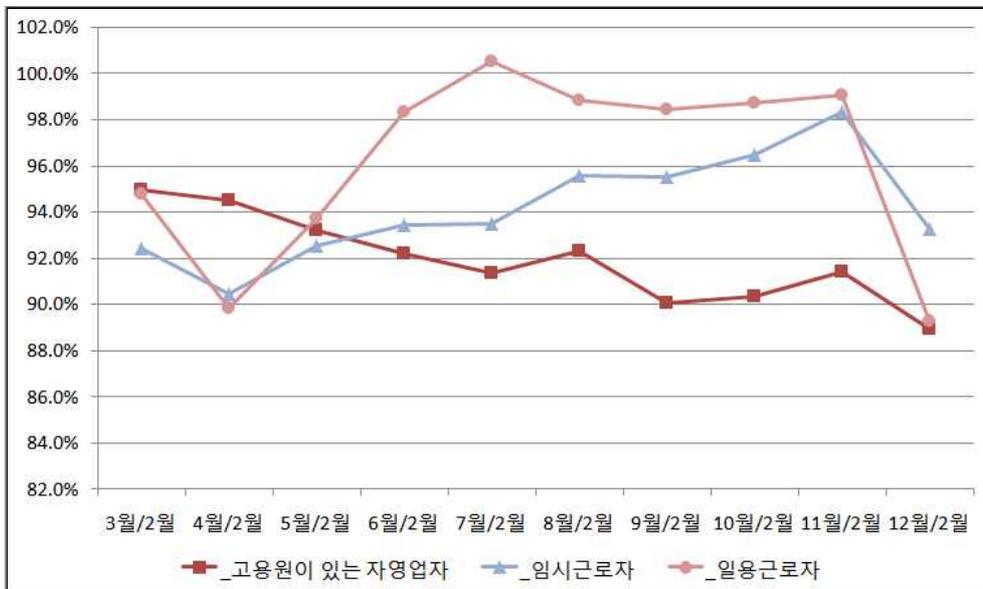
[표 11]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추이(단위: 천명)

| | 2020. 02 | 2020. 04 | 2020. 06 | 2020. 08 | 2020. 10 | 2020. 12 | 2월-4월 | 2월-12월 | 4월/2월 | 6월/2월 | 8월/2월 | 10월/2월 | 12월/2월 |
|--------------|----------|----------|----------|----------|----------|----------|-------|--------|-------|-------|-------|--------|--------|
| 비임금근로자 | 6,744 | 6,594 | 6,500 | 6,497 | 6,518 | 6,576 | -150 | -168 | 97.8% | 96.4% | 96.3% | 96.6% | 97.5%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472 | 1,391 | 1,357 | 1,359 | 1,330 | 1,309 | -81 | -163 | 94.5% | 92.2% | 92.3% | 90.4% | 88.9%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4,174 | 4,155 | 4,116 | 4,119 | 4,160 | 4,238 | -19 | 64 | 99.5% | 98.6% | 98.7% | 99.7% | 101.5% |
| 무급가족종사자 | 1,099 | 1,048 | 1,028 | 1,018 | 1,028 | 1,029 | -51 | -70 | 95.4% | 93.5% | 92.6% | 93.5% | 93.6% |
| 임금근로자 | 20,722 | 19,914 | 20,247 | 20,430 | 20,350 | 20,196 | -808 | -526 | 96.1% | 97.7% | 98.6% | 98.2% | 97.5% |
| 상용근로자 | 14,631 | 14,415 | 14,490 | 14,564 | 14,441 | 14,570 | -216 | -61 | 98.5% | 99.0% | 99.5% | 98.7% | 99.6% |
| 임시근로자 | 4,723 | 4,271 | 4,413 | 4,514 | 4,558 | 4,406 | -452 | -317 | 90.4% | 93.4% | 95.6% | 96.5% | 93.3% |
| 일용근로자 | 1,368 | 1,229 | 1,345 | 1,352 | 1,351 | 1,221 | -139 | -147 | 89.8% | 98.3% | 98.8% | 98.8% | 89.3% |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의 2월 대비 매월 취업자 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일용근로자’는 변동이 심하고 ‘임시근로자’는 4월 이후 대체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12월에 급락하였다.

[그림 20]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주요 ‘종사상 지위’ 취업자에서의 2월 대비 매월 비율 변화 추이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③ 한국의 실업상황

12월 실업자규모(계절조정)는 약 128만명으로 2월 약 93만에 비해 약 36만명이 늘었다. 8월 실업자는 위기 이전인 2월에 비해 오히려 줄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시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 증감을 고려한 실질적인 실업자는 약 191만명으로 2월에 비해 약 98만명이 증가한 상태다. 그리고 일시휴직자 증감을 감안한 잠재실업자는 12월에 약 235만명으로 2월에 비해 약 128만명이 증가하였다. 실질실업자, 잠재실업자 모두 4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여전히 2월에 비해서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해 있는 상태다([표 12]²⁴⁾

참조).

[표 12] 한국의 실업자 증감(단위: 천명)

| | 2020. 02 | 2020. 03 | 2020. 04 | 2020. 05 | 2020.08 | 2020. 09 | 2020. 12 | '02/02 | '03/02 | '04/02 | '05/02 | '08/02 | '09/02 | '12/02 |
|----------------------|----------|----------|----------|----------|---------|----------|----------|--------|--------|--------|--------|--------|--------|--------|
| (계절조정)실업자(A) | 927 | 1,054 | 1,051 | 1,242 | 891 | 1,088 | 1,284 | 100.0% | 113.7% | 113.4% | 134.0% | 96.1% | 117.4% | 138.5% |
| 2월 대비 실업자 증감 | | 127 | 124 | 315 | -36 | 161 | 357 | | | | | | | |
| (계절조정)비경제활동인구 | 16,249 | 16,817 | 17,170 | 16,858 | 17,000 | 16,954 | 16,873 | 100.0% | 103.5% | 105.7% | 103.7% | 104.6% | 104.3% | 103.8% |
| 2월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B) | 0 | 568 | 921 | 609 | 751 | 705 | 624 | | | | | | | |
| 실질실업자(C=A+B) | 927 | 1,622 | 1,972 | 1,851 | 1,642 | 1,793 | 1,908 | 100.0% | 175.0% | 212.7% | 199.7% | 177.1% | 193.4% | 205.8% |
| 2월 대비 실질실업자 증감 | | 695 | 1,045 | 924 | 715 | 866 | 981 | | | | | | | |
| 일시휴직자 | 618 | 1,607 | 1,485 | 1,020 | 846 | 789 | 745 | | | | | | | |
| 전년 동기 대비 일시휴직자 증감(D) | 142 | 1,260 | 1,130 | 684 | 142 | 417 | 438 | | | | | | | |
| 잠재실업자(E=C+D) | 1,069 | 2,882 | 3,102 | 2,535 | 1,784 | 2,210 | 2,346 | 100.0% | 269.6% | 290.2% | 237.1% | 166.9% | 206.7% | 219.5% |
| 2월 대비 잠재실업자 증감 | | 1,813 | 2,033 | 1,466 | 715 | 1,141 | 1,277 | | | | | | | |

자료: 한국국가통계포털

결론적으로 최악의 고용 및 실업 상황을 보여준 4월 이후 고용 및 실업 상황이 개선되어 가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9월에 조금 다시 악화하였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된 12월에는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 정도에 따라서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확실히 코로나 19 대유행을 잠재울 때까지는.

한편 현재 고용 및 실업 상황은 정부의 각종 고용유지정책에 기대 통계상으로는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실재는 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나쁠 것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3) 각국의 실업률 비교

[그림 21]에서 보듯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같이 급격한 실업률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에서 신자유주의를 전형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칠레가 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나 그 변동성은 미국보다는 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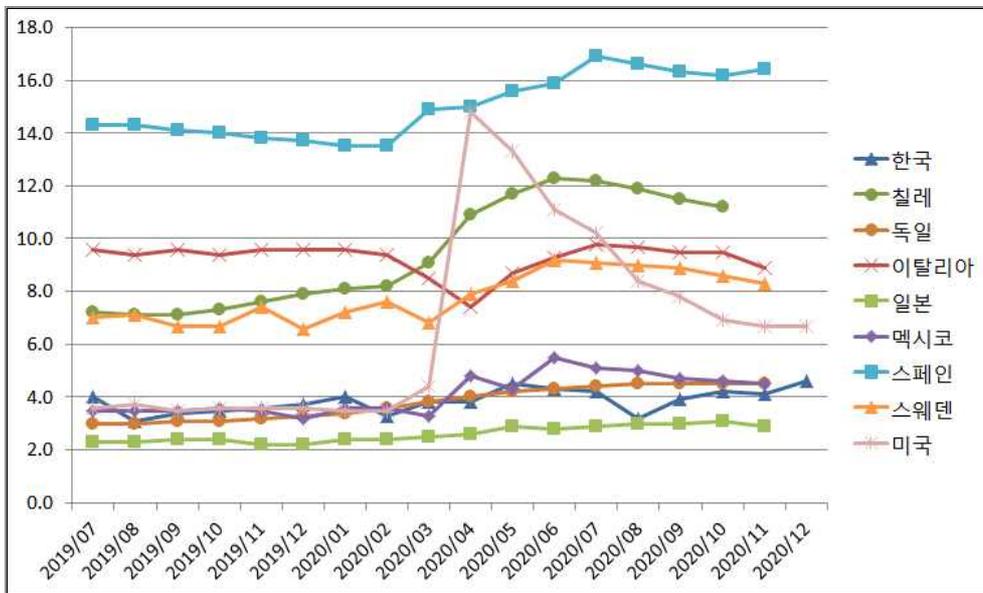
미국도 고용유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더욱 강력한 고용유지

24) 필자의 몇몇 글에 유사한 표가 있었으나 이는 2020년 8월 최신의 통계까지 포함된 표임을 밝힌다.

정책이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의 현재의 실업률은 경제상황을 반영한 실업률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실업자가 대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률이 과소 추계되어 있다.

[그림 21] 주요국 실업률



자료: 한국은행

(4) 소결

각국 고용 및 실업 상황이 1차 봉쇄조치 해제 이후 대체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개선이 거의 멈춘 상태다. 미국이나 한국도 12월 들어서 악화되었다. 이후 각국에서 추가적인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있을 때마다 고용 및 실업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일정한 개선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 힘입고 있었다. 실제 상황은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

고용 및 실업 상황의 업종별 편차도 매우 심각하다. 군집, 이동, 대면 서비스와 관련한 업종의 고용상황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업종 사이의 명암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지원이 아무리 크다 해도 고용증대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데 ‘레저 및接客업’ 등 코로나 19 대유행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 업종은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업종에서 과거의 고용 규모 회복이 난망하기 때문이다. 택배업 등에서의 고용증대 규모는 이들 업종의 고용감소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 종사자들(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은 대체로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다. 이 저임금 저소득마저 없어지는 이들 업종의 종사자들의 상황으로 인해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전례 없이 심화하고 있을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편 재난지원을 위한 정부 부담도 늘어가고 있어서 이런 지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른다.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 일정하게 개선되고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및 실업의 열악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전망 및 함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촉발이 되었지만 장기에 걸친 이윤율의 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라는 조건, 그리고 순환적 공황과 맞물리면서 위기는 증폭되었다.

각국 경제상황은 2사분기의 큰 폭의 역성장 뒤 3사분기에 상당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는 방역을 일정하게 포기하면서 얻은 결과이고 이런 결과마저 불안하기 그지없다. 몇몇 나라에서 추가적인 봉쇄조치를 취하면서 4사분기 성장률이 대폭 낮아지거나 역성장으로 돌아선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효험이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처방이 있기까지는 이런 상대적인 호전이나 악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사분기의 성장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4사분기에 수출증대로 플러스 성장을 했으나 이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봉쇄조치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사이의 편차도 극심하다.

물론 이 정도의 상황도 대대적인 정부지출 증대와 제로이자율로의 복귀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대와 금융투기 및 불안정을 댕가로 한 것이다. 좀비기업은 늘어가고 있고, 효험이 확실한 백신이나 치료제 처방이 있기까지는 고용 및 실업상황의 추가적인 개선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각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주도 세계자본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자본주의는 잘해야 3%대 성장, 못하면 1-2% 성장 및 역성장을 오가는 장기불황 상태에 있다. 즉 이윤율 저하 및 낮은 이윤율 수준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고(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가 그 특징이다), 2008년 위기 이후 저조한 성장이긴 하지만 장기에 걸친 회복 끝에 과잉생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설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한 문제들이 거의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요인들에 따른 위기적 양상을 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장기불황은 지속될 것이고, 원유생산, 다수 제조업, 새롭게 거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보기술 기반 산업 등에서의 구조조정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서 전례 없이 심화된 부와 소득의 양극화로 인

한 사회적 갈등의 완화책으로서 각국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들이 소멸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될 문제도 상당할 것이다. 코로나 19 대유행이 거의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위기는 새로운 형태로 지속되고 사회적 모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15]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 고용·실업 분석 및 전망)에서 필자는 장기에 걸쳐 예상되는 대량실업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한시적) 해고금지, 실업급여와 휴업수당 인상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보장,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산업간 인력재배치, 사회적 연대를 위한 고소득층과 자산계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더해 좀비기업의 사회화와 노동조합이나 직원평의회의 개입이나 통제도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이 악화한다면 방역을 위해서 노동자 1인당 적정 면적 확보를 위한 작업장 재설계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빈발 및 확산이 생태위기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국 정부의 정책들 중에 그런 정책은 거의 없고 당장의 경제위기를 완화하거나 벗어나자는 대중요법의 정책들만 제출이 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결국 코로나 19 대유행과 경제위기의 노동자 민중적 관점에서의 극복이나 생태위기의 극복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에 달려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